

우리국토 곳곳에 담겨있는 십이지 동물

“띠 지명” 이야기





발간사



이 책은 우리나라의 약 10만 개의 지명(地名) 중에서 십이지(十二支) 동물과 관련된 지명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십이지 관련 지명들과 그 유래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우리 국토에 녹아있는 십이지 동물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조상들의 시각과 문화, 그에 따른 역사적 사건이나 전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쉽게 전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원에서 십이지와 관련하여 우리 국토에 나타나는 지명들에 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그 해에 해당하는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왔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면서 장장 12년에 걸친 조사를 일단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십이지’의 전통적인 상징성을 알 수 있었고, 우리민족의 정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성격이나 인식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토의 실체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성과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실린 정보와 이야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국토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민족의 삶의 숨결을,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공호상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

머리말



한국인이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바로 열두 종류의 동물들을 상징하는 열두 개의 글자들, 즉 ‘십이지(十二支)’입니다.

십이지(十二支)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시간과 계절, 방위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쥐를 시작으로 해서,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열두 마리 동물들이 각각의 글자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 인접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동물들이 십이지의 목록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령 ‘묘’의 경우 베트남과 네팔에서는 토끼 대신 고양이가 대신하는가 하면, ‘진’은 태국에서는 용이 아니라 ‘나가(Naga)’라는 신화 속 반인반사(半人半蛇)를 가리키는 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이지’는 각 지역의 기후와 지리, 문화와 종교 등과 서로 얽히면서 특유의 문화적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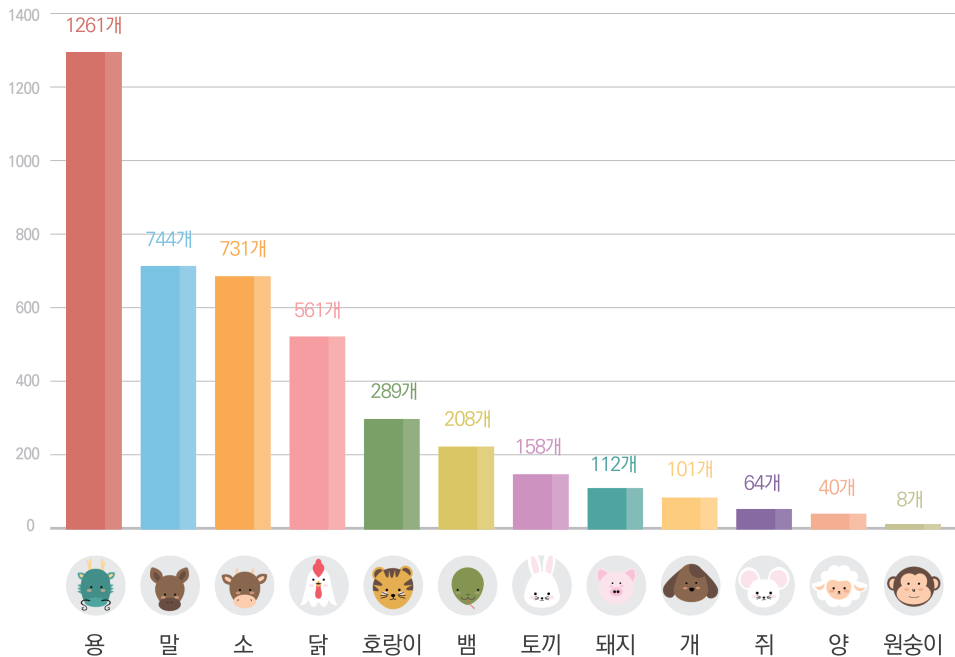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21년은 ‘신축년’으로 ‘소’의 해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매 년마다 그 해에 해당하는 동물의 이름을 함께 사용합니다. 게다가 비록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하루까지도 열두로 나누어 각각의 시간에 십이지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인이자 누구나 태어난 해와 그에 상응하는 십이지에 따른 자기만의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하루의 시각을 십이지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인에게 있어 십이지는, 시간이란 관념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관념이자 상징체계였습니다.

이러한 십이지의 중요성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정착생활을 시작한 농경민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땅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땅을 어떻게 부르는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땅 이름, 지명에 다름 아닌 십이지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십이지가 나타나는 양상에 관한 자료는 그동안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우리 국토 속에 존재하는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호랑이(경인년, 庚寅年)의 해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소(신축년, 辛丑年)의 해에 이르기까지 12년에 걸친 조사 끝에 드디어 전국 띠 지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에 고시되어 있는 지명 약 10만 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십이지 동물 관련 지명은 4,109개로 전체 중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십이지의 열두 동물들 중 어떤 동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지명을 만들었을까요? 흥미롭게도 상상 속의 동물인 용과 관련된 지명이 1,26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말(744곳)과 소(731곳)와 관련된 지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원숭이는 8곳으로 가장 적었으며, 양(40곳), 쥐(64곳), 개(101곳), 돼지(112곳)가 적은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숭이와 양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동물이기 때문에, 지명으로 많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쥐와 개와 돼지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명에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각각의 동물에 대한 특징과 거기에 해당하는 지명의 종류와 특징 등에 대해 하나씩 개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십이지 동물들과 관련하여 우리 국토에 녹아 있는 문화와 역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목 차

	쥐	6
	소	14
	호랑이	26
	토끼	36
	용	46
	뱀	54
	말	64
	양	72
	원숭이	78
	닭	86
	개	94
	돼지	102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십이지 열두 동물들을 이끄는 ‘쥐’

쥐는 십이지의 열두 동물 중 가장 먼저 등장하며, 십이지 중 첫 번째 글자 ‘자(子)’에 해당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자정이 포함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자시(子時)라고 부르며, 방향으로는 정북(正北)을, 달로는 음력 11월을 가리킵니다.

쥐는 예로부터 왕성한 번식력으로 부유함(富)과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이나 홍수 등이 닥치기 전에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과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은 쥐를 예지(叡智)를 상징하는 영물이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영민함을 갖춘 동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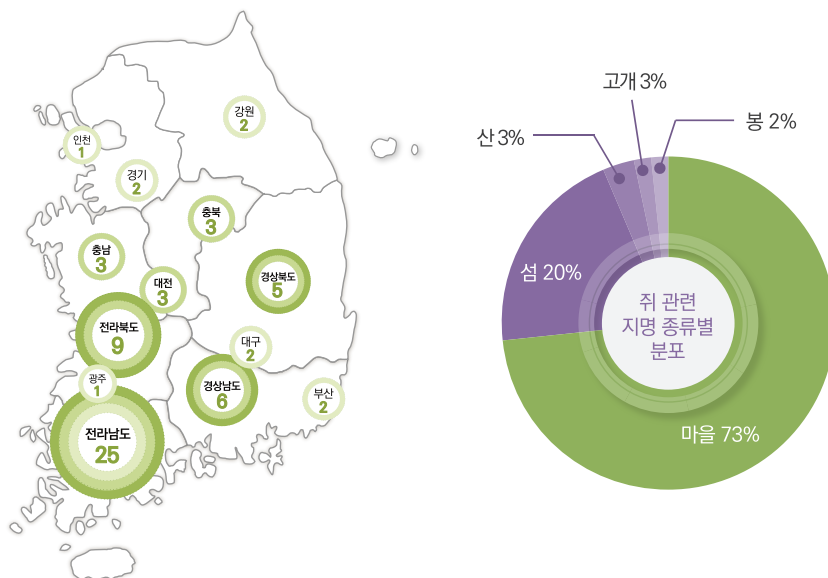
하지만 다른 설치류와 달리 쥐는 인간의 거주지에 서식 하면서 농작물을 갉아먹고 병을 옮기는 생태적 특성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라는 인상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쥐가 들어가는 지명에서 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하며 수행되었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하는 십이지 동물 관련 지명 중 쥐와 관련한 것은 총 64개이며, 이는 십이지 중 9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전국에서 쥐와 관련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구서고’ 마을을 포함한 총 25개의 지명이 확인되었으며, 그밖에도 전북 9개, 경남 6개, 경북 5개 등 전국에 걸쳐 쥐와 관련된 지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쥐 관련 지명은 전남 신안군 ‘대서도’를 비롯한 서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는 쥐가 예로부터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하는 영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안과 도서지역에서는 쥐를 뱃길의 안전,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해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순우리말 '쥐'가 들어가는 지명

먼저 이름에 순우리말인 '쥐'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명들 중에서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쥐섬'을 포함해 전국에 총 6개로 나타난 '쥐섬'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류별로는 마을이 47개, 섬이 13개, 산이 2개 등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쥐를 상징하는 한자가 쓰인 지명

쥐를 의미하는 한자로는 '쥐 자(子)'와 '쥐 서(鼠)'가 있으며, 이 글자를 사용하는 지명도 우리 국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여수시 '서치도(鼠峙島)'나 경기도 평택시 '자오(子午)'마을 등이 있습니다.



쥐의 모습에서 유래한 지명



경남 사천시 곤명면 ‘서정’마을의 경우 뒷산 모양이 쥐를 닮았다고 하며,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마을은 쥐가 앞쌀섬을 바라보며 건너갈지 방도를 궁리하는 형상이라는 점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두머리’ 마을은 마을과 뒷산이 경계를 이루는 형태가 쥐의 머리를 닮았다는 점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서두머리마을 항공사진

한편,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서근’마을은 마을의 형국이 쥐가 창고 속에 들어 있는 모양이라 서고내(鼠庫內)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가, 훗날 행정개편으로 서근(西斤)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근마을 지명 유래



마을의 형국이 쥐가 창고 속에 들어 있는 모양이라 서고내(鼠庫內)라 명명되다 후일 행정개편으로 서근(西斤)으로 개명되어 작금에 이르렀다.

섬진강이 흘러들어 바다를 이루고 은빛 물결이 나부끼던 곳... 간척 전에는 갈사에서 육지로 나가는 관문으로 이곳 나루를 건너야 했으니 포구로서의 향수를 잔뜩 머금고 있다.

여기 돛배를 띄우고 서고내의 고명도 새기며 마을의 무궁한 번영과 웅비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사형통을 비는 주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그 흔과 흔적을 받들어 담다. (출처: 서근마을 유래비)

쥐 관련 이야기가 담긴 지명



쥐 관련 이야기로 인하여 이름이 붙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 덕곡면에 있는 ‘상비리’마을은 산의 모습이 마치 코끼리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상비산을 끼고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산의 기운이 너무 왕성하여 코끼리의 힘을 줄이기 위해 쥐를 길러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을 이름을 ‘서우재’로도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마을은 마을의 형상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쥐를 삼살개가 쫓으려 하는 모양이라 하여 삼살개 방(尨), 쫓을 축(逐), 쪼그리고 앉을 판(跣), 쥐 서(鼠)를 뜻하는 방축판서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쥐를 일본으로 묘사해, 일제강점기때 마을과 인근 호남의 쌀과 물자를 일본으로 착취해 가려고 했으나 삼살개가 지켜주는 덕에 마을이 무사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집니다.



지명에 나타나는 쥐의 이중적인 이미지

사람들에게 있어 쥐는 부와 다산과 예지를 상징하는 영물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공간을 털고 병을 옮기는 동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의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었으며, 이 점은 지명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정마을 항공사진

경남 함양군 백전면에 있는 평정마을의 터는 높은 쥐가 밭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마을에 서 부자가 나온다는 '노서하전(老鼠下田)'의 명당이라 전해집니다. 여기에서는 근면성실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쥐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반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세마을 전경

반면 전남 곡성군 오산면의 '선세'마을은 옛날 쥐가 다닌다는 의미로 '현서'라 불리었는데, 마을이 우연히 폐촌이 되고 인심이 변하자 사람들이 이를 지명 탓이라 생각해 선하고 어진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의 '선세'로 마을 이름을 바꿔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경우 쥐는 부정적인 동물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화 <툼과 제리>의 ‘제리’는 약삭빠르고 교활하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운 쥐입니다. 아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쥐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친밀하면서도 얄미운 존재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쥐와 관련된 다수의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십이지 중 첫 번째로 나타나는 쥐에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예지’를 상징하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공간을 몰래 터는 약삭빠른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쥐와 관련한 지명은 다른 여러 십이지 동물에 비하면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쥐가 사용된 다수의 지명과 그에 얹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다른 십이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쥐 역시 우리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왔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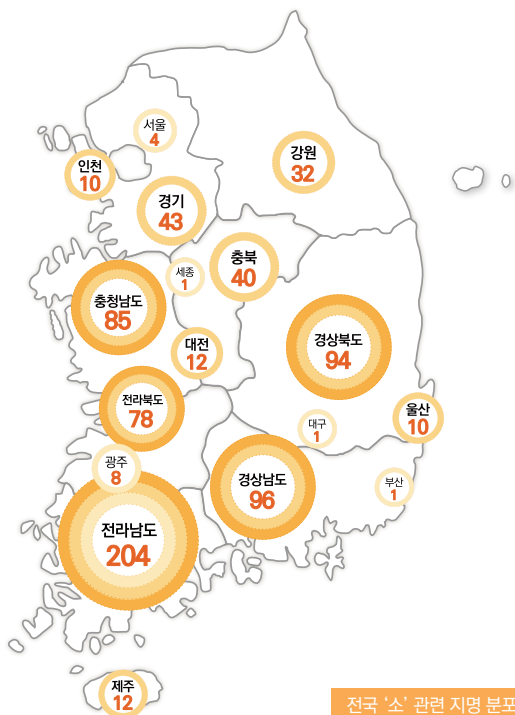
돼지

풍성하고 넉넉한 날을 기원하는 ‘소’

십이지의 열두 동물 중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소입니다. 십이지 중 ‘축(丑)’에 해당하는데, 시간으로 축시(丑時)는 자시에 이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방향으로서는 북북동(北北東)을, 달로는 음력 12월을 가리킵니다.

소는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근면하게 일하는 동물로 여겨졌으며, 소와 함께 하는 경작을 통해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동물로도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가죽, 뿔 등의 부산물을 제공하는 동물이라는 점에서는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로도 여겨졌지만, 예로부터 소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놓칠 수 없는 가치는 농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동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도시생활이 주가 되고 있는 현대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와 관련된 표현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밖에 ‘소처럼 우직한’이나 ‘소처럼 순박한’ 등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농경과는 대부분 거리가 멀어진 현대인들에게도 소는 여전히 친숙한 동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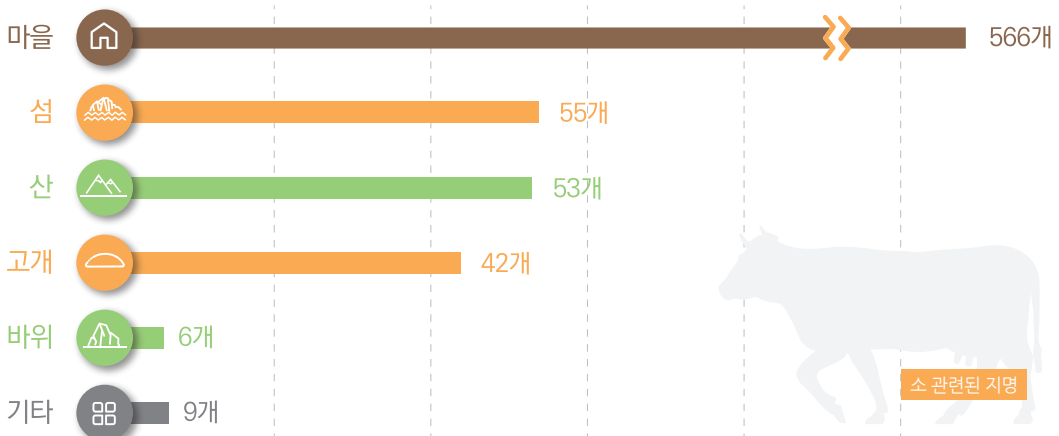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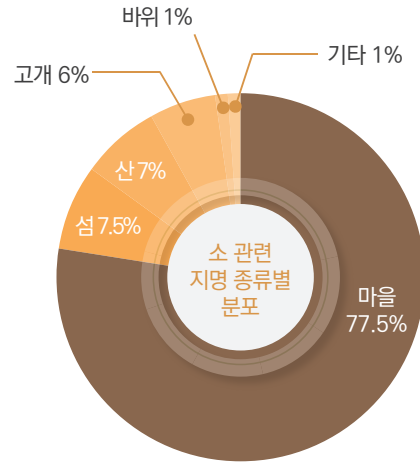


전국 '소' 관련 지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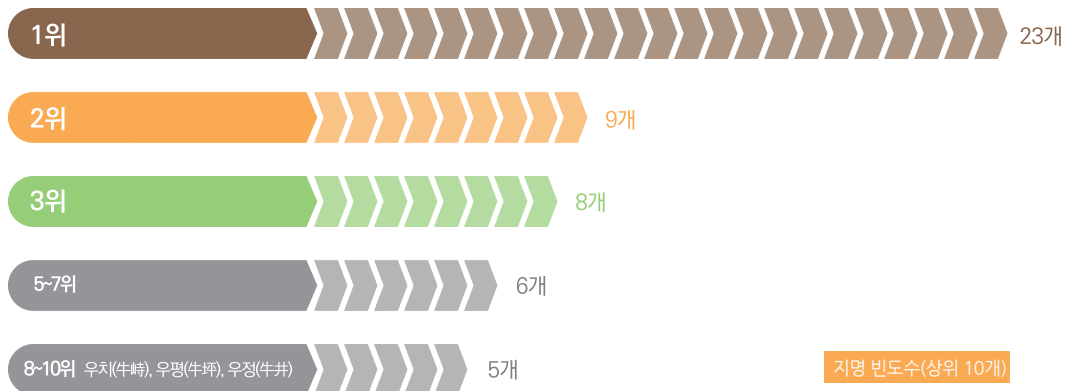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앞두고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소와 관련하여 고시된 지명은 총 731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십이지와 관련된 지명 중 용(1,261개)과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소가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소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입니다. 나주시 봉황면 ‘와우동’ 등 20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96개, 경상북도 94개, 충청남도 8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와 관련된 지명은 많은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그 종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마을이 56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섬 이름에 55개가, 산 이름에 53개가 있으며, 고개에도 42개가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의 어디에서나 소와 관련된 지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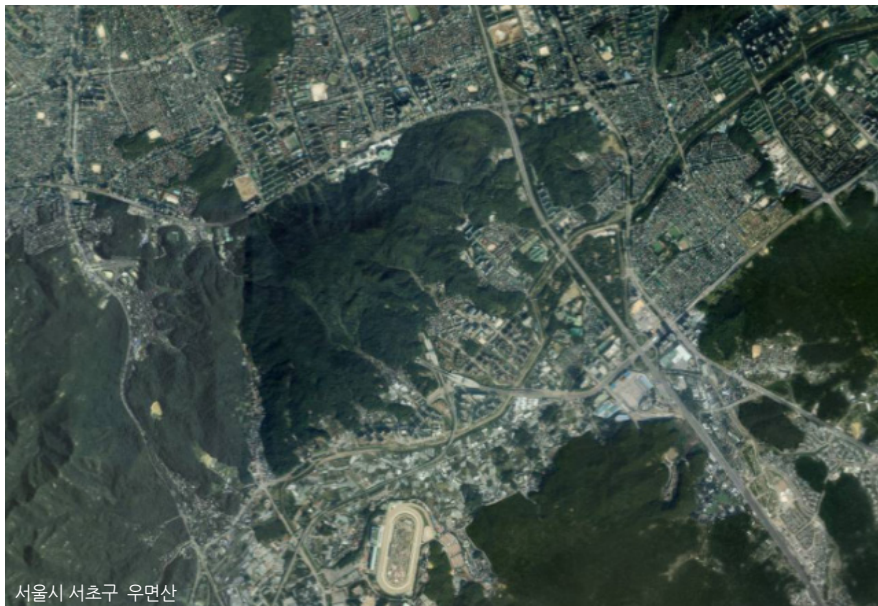
빈도순으로는 전남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우산(牛山)'이라는 지명이 전국에 23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우동', '우암', '우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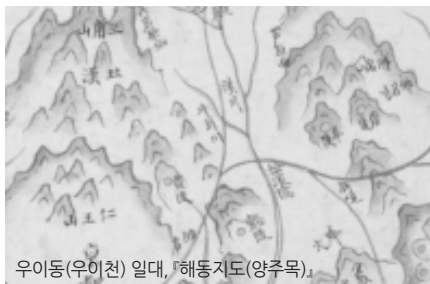
소를 닮은 지명

소의 이름이 담긴 지명들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소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들입니다. 이는 주로 산이나 섬, 바위의 형태가 소의 모습과 닮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들로, 우리 조상들의 실제 생활에 소가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 지명들이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牛眠山)’은 ‘소가 잠자는 산’이라는 이름 그대로 산의 모양이 소가 졸고 있는 형상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면산 남쪽 기슭에는 청동기 시대 유적인 지석묘가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



우이동(우이천) 일대, 『해동지도(양주목)』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牛耳洞)은 마을에서 보이는 북한산(北漢山)의 백운대와 인수봉이 소의 귀처럼 보이므로 그것을 소귀봉/쇠귀봉/쇠구봉 등으로 불렀으며, 그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하여 쇠귀마을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마을을 거쳐 흐르는 하천의 이름 역시 소귀내였는데, 지금도 우이천(牛耳川)은

도시 한 가운데를 흐르며 시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소
[丑]

제주특별자치도 최동단에 위치한 우도(牛島)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해식동굴과 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이 아름다운 섬으로, 바다 쪽에서 바라보면 그 형태가 누운 소 모양이라는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도 안에서도 소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도의 최고봉인 '우도봉'은 산봉이 소의 머리에 해당한다 하여 '쇠머리오름'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머리오름에서 내려다보면 소의 눈(牛目)에 해당하는 위치에도 '상우목동(上牛目洞)'과 '하우목동(下牛目洞)'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에는 산이 물소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서우봉(犀牛峰)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는 진도에서 거제를 거쳐 제주에 도달한 삼별초군이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소가 누워있는 모양에서 와우산(臥牛山)이라고 불리다가 바뀐 '우암산(牛岩山)', 동쪽과 서쪽에 소의 형상을 한 섬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게 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와 '서소우이도' 등, 우리 국토에는 소를 닮아 붙여진 지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도독은 큰 도독

소는 우리의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동시에 자산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소는 식량과 가죽을 제공하는 단순한 가축의 역할을 뛰어넘어, 농경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소는 그 자체로 '부'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에는 '쇠실(牛谷)'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마을 뒤의 산이 마치 소가 누운 형상이며, 옛날에 돈이 많은 우(牛)부자가 살았다는 데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부자는 성이 '우'씨였다기보다는 '소를 많이 소유한 부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문의 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큰 도둑으로 간주되는 소도둑을 조심해야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지명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지명에 소도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우금고개는 동학군이 관군과 맞서 싸우다 크게 패한 곳인 ‘우금치(牛禁峙)’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이름은 옛날 이 고개에서 소도둑이 많이 나타나 해가 저물었을 때 소를 끌고 고개를 넘어가면 도둑들에게 소를 빼앗기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장을 보고는 소를 끌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고개 넘기를 피해야 한다 하여 우금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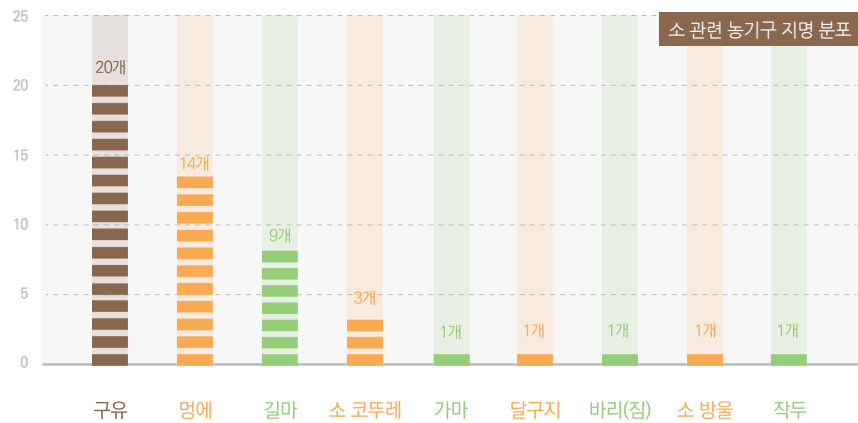
그밖에도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구축(九丑)’마을은 옛날 한 선비가 아홉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마을을 발전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우가’마을은 인근 마을의 소가 병에 걸려 증세가 날로 심해지자 전염 방지를 위해 이곳 우가마을에 집을 짓고 피난시키면서 우가(牛家)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풍요와 번영, 삶의 윤택함이라는 측면에 있어 소는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의 농기구 관련 지명



소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소와 함께 하는 활동, 즉 농사와 관련하여 소에게 사용하는 농기구의 이름이 들어간 지명들이 눈에 띕니다.

소의 농기구 관련 지명은 전체 소 관련 지명 중 6.9%인 51개입니다. 대표적인 농기구는 소가 쟁기질 할 때 목에 거는 막대인 ‘멍에’, 소를 비롯한 가축들의 먹이를 담은 그릇인 ‘구유’, 소의 등에 얹어 물건을 운반하는데 쓰는 연장인 ‘길마’(지르마, 질매, 질마, 지르매, 기르매, 기르마)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코뚜레’와 ‘방울’, ‘달구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멍에실’ 마을은 마을의 모습, 또는 마을 뒷산의 모습이 소의 ‘멍에’와 비슷해서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밀양역 옆에 위치한 이 마을은 지명유래를 살린 다양한 벽화와 조형물들로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동여도」(21책 4면)의 가우도(가우) 일대

전라남도 강진군은 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강진군의 도암면 용흥리 앞바다에는 ‘가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는 강진군 보은산이 소의 머리에 해당되고 이 섬이 소의 멍에에 해당된다고 해서 가우도(駕牛島)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駕)’는 멍에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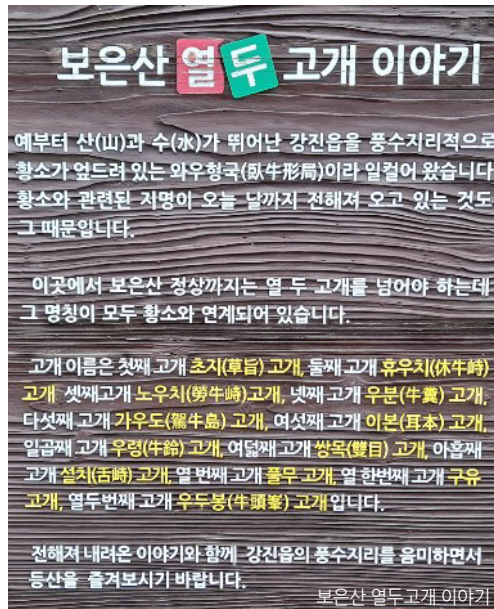


전남 강진군 '가우도' 전경

지역 향토지인 『강진군 마을사』에는 강진군 전체의 지형을 와우형(臥牛形)으로 묘사하면서 소 관련 지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우(駕牛)’란 가마나 상여 또는 짐수레를 끄는 소를 일컫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 '가우도' 전경



소의 머리에 해당하는 강진군 보은산의 정상 봉우리의 이름도 ‘우두봉’입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데 넘어야 하는 열두 개의 고개마다 황소와 연관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두봉(牛頭峰)의 앞쪽 시가지는 소의 얼굴에 해당하며, 동문과 서문에 위치한 양쪽의 정호(井戶)는 소의 눈에 해당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강진군 초동(草洞) 역시 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이 마을 앞에 신조라는 냇물이 있었다 해서 ‘신조내’라 부르고 소는 풀을 먹고 산다하여 이 마을을 초동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즉 우두봉 자락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 소의 먹이가 있다는 의미로 초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소의 먹이를 주는 ‘구유’는 지역에 따라 구시, 구이, 귀, 여물통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습니다. 이 점은 마을의 지형이 소가 여물을 먹는 구유통처럼 생겼다 하여 지명이 유래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통골’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구시골’, 경북 봉화군 명호면 ‘구우밭(九牛田)’ 등의 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코투레골’이나,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질매재’ 등 소의 농기구와 관련된 지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경문화 중심으로 발달해온 한반도의 역사적 조건과 결합되어 소와 관련한 여러 도구들이 땅이름에 나타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소 관련 이야기에서 유래한 지명

‘의열도(의우도)’라는 그림은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한 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는 의로움(義)을 아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에는 인간을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은 소의 헌신과 의리를 기리는 지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마을에 한 어린이가 마을가에서 놀고 있는데 맹수가 달려드는 것을 옆에서 본 소가 대적하여 맹수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구했다고 하여 소의 은혜라는 의미에서 마을 이름을 ‘소의 은혜’, 즉 ‘우혜(牛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도 소와 관련된 재미있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똥령 고개’가 그것입니다. 이곳은 옛날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고개로, 지명에 대한 유래는 다양하게 전해지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고개 너머 시장으로 팔려가던 소들이 고개 정상에 있는 주막 앞에 똥을 많이 누는 바람에 산이 소똥 모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밖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산 생김새가 소똥과 같이 되어버린 탓에 ‘소똥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서 북쪽의 ‘소돌’마을은 마을에 있는 바위가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소돌이라 하였다는 설과 마을의 모습이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라고도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소돌마을의 형상은 소가 동쪽을 향해 앉아 있는 모습인데, 바닷가에 바다를 향해 치솟은 형태의 바위가 소뿔이 달린 머리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소의 젖에 해당하는 위치에 자리 잡은 집 한 채에는 소의 젖이 마르지 않듯 살림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소돌항은 소의 먹이통인 구유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어부들의 배가 마을에 먹거리를 넣어주는 형국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소돌마을(아들바위공원)



전남 해남군 '우분'마을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에는 ‘우분(牛分)’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통일신라시대 승려 의조에 의해 창건된 ‘미황사(美黃寺)’라는 사찰의 창건설화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귀한 불경들과 탕화 등이 실린 배를 발견하게 된 승려 의조가 그것을 봉안할 사찰 터를 찾던 중, 꿈에 나타난 신인이 그에게 ‘경전과 불상을 소에 싣고 가다가 소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짓고 모시면 국운과 불교가 함께 흥하리라’고 알려주자, 일러준 대로 소가 마지막에 멈춘 곳에 창건된 것이 바로 미황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소가 나중에 죽게 되어 땅에 묻자 사람들이 그곳을 ‘소의 무덤’이라는 뜻의 ‘우분(牛分)’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연과 사람을 사랑했던 시인 백석은 그의 시 <절간의 소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들면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는 소는 인간(人間)보다 영(靈)해서 열 걸음 안에 제 병을 낫게 할 약(藥)이 있는 줄 안다고/ 수양산(首陽山)의 어니 오래된 절에서 칠십(七十)이 넘는 로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치마자락의 산(山)나물을 추었다”

이처럼 소는 전통 농경 사회에서 힘든 농사일에 드는 고생을 함께 나누는 고마운 동물이자, 항상 곁을 지켜주는 훌륭한 동반자였습니다. 소는 때로는 강인한 힘을 나타내거나 또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직하고 순박하면서도 지혜롭고 여유로운 천성을 지닌 동물로도 인식되었습니다. 땅을 갈고 짐을 나르는 소의 모습,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여물을 먹는 소의 모습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누구나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일상의 한 단면이었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특히 ‘와우(臥牛)’ 등 누워있는 소의 모습이 자연물과 땅의 이름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바쁜 농사철이 마무리될 때쯤 사람들이 느꼈을 느긋한 마음이 누워있는 소의 모습에 투영되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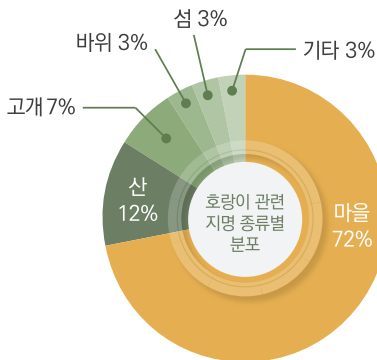
돼지

한국인의 얼과 기상이 서린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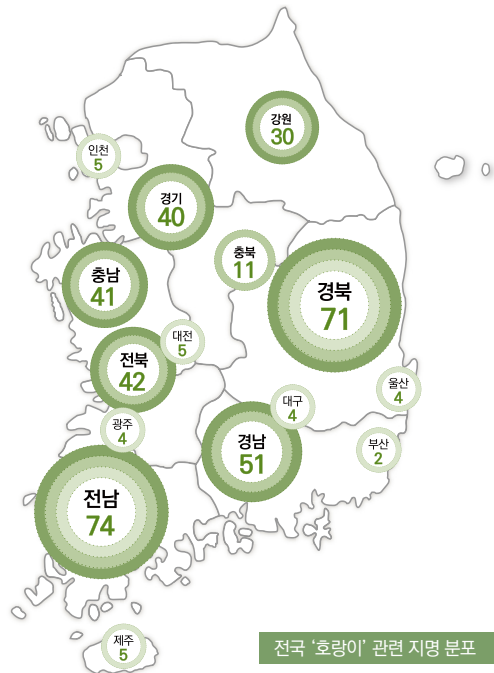
호랑이는 십이지의 열두 동물 중 세 번째로 등장하며, 글자로는 ‘인(寅)’에 해당합니다. 축시에 이어지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인시(寅時)라고 부르며, 방향으로는 동북동(東北東)을, 달로는 음력 1월을 가리키며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그 강인함과 위엄으로 말미암아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힘과 민첩함, 용맹을 갖춘 호랑이는 훌륭한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자태를 지녔다고 하여 ‘산주(山主)’나 ‘산군(山君)’ 등으로 불리면서 때로는 산신령의 화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으며, 사방신(四方神) 중 유일하게 실재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동양 문화권 안에서 호랑이는 용과 함께 최강의 동물이자 영물(靈物)로 인식되어 왔으며, 나아가 제왕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가장 위험한 맹수였던 호랑이는 가장 위험한 재해 중 하나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禍)라는 의미의 ‘호환(虎患)’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질병이나 전쟁만큼이나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2010년 경인년(庚寅年)에 시행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토에서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은 모두 389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전라남도가 7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71개, 경상남도가 5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284개, 산의 명칭이 47개, 고개명이 28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중 호랑이 관련 마을 명칭에 있어서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다는 사람과의 관련 내용이 많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한반도와 호랑이, 그리고 호미곶



호랑이와 우리나라를 함께 연 관지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의 형상입니다. 한반도가 토끼를 닮았다고 주장하는 어느 일본 학자의 발언에 대해 반발한 육당 최남선은 한반도를 호랑이가 연해주를 할퀴고 있는 형상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 2002년 백두대간 끝자락에 자리를 잡은 포항 장기곶이 호미곶(虎尾串)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의 유래는 조금 복잡합니다.

호미곶은 원래 말갈기처럼 생겼다 해서 조선시대에는 장기곶으로 불렸으나, 1918년 일제가 곶(串)을 일본식 표현인 갯(岬)으로 고쳐 장기갯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정부가 다시 명칭을 장기곶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지금의 이름인 ‘호미곶’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약 400여 년 전 격암 동해산수비록의 저자인 남사고는 장기산맥의 최단부 즉 장기갯을 호미등(범꼬리)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대동여지도를 저술한 고산자 김정호도 장기산맥의 최동단을 장기갯 호미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육당 최남선은 백두산호랑이가 연해주를 할퀴고 있는 형상으로 한반도를 묘사하면서 이곳을 호랑이 꼬리라고 지목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 호미곶을 찾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만큼이나 밝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랑이가 살던 마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신양북리 복거마을의 옛 지명은 ‘복호’마을입니다. 복거마을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뒷산이 마치 호랑이가 엎드려 앉아있는 것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이 원래는 ‘호동(虎洞)’ 또는 ‘복호리(伏虎里)’라 불렸는데, 어느 날 한 고인이 복호보다는 마을에 풍요를 가져오는 ‘복거(福巨)’라는 이름이 더 좋다고 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2009년에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호랑이가 살던 마을’로 선정되면서, 호랑이와 관련하여 ‘하늘에서 호랑이가 내려온다’, ‘옥상 위의 호랑이’, ‘호랑이를 기다리며’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표현한 멋진 벽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마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마을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마을 어디에서나 호랑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벽화



호랑이가 살던 마을 벽화

지역이 모두 호랑이 관련 지명



충남 아산시 호산리 마을 항공사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虎山里)는 원래 마을을 품고 있는 산의 형상이 옆드린 호랑이를 닮았다 하여 지어진 명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특이한 것은 그 이름에 호랑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의 여러 곳에서 도 호랑이와 관련된 명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산리를 비롯하여 ‘밖범이’마을과 ‘안범이’마을, 그리고 ‘새터범이’마을과 ‘범이고개’까지 나타나면서, 이곳은 지역 전체에 걸쳐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 위	해당지명	지명의 유래
밖범이	마을명	이 곳은 복호형(호랑이가 옆드린 모양)으로 생긴 산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밖범이라 한다.
안범이	마을명	뒷산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치 범이 마을을 품안에 끼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안범이라 부른다.
범이고개	고개명	호산리 입구에 있는 고개라서 범이고개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온양 장을 보려면 이 고개로 가야 한다 하여 장고개라 부르기도 하였다.
새터범이	마을명	마을 뒷산 모습이 범이 누워있는 형으로 인근마을 중에 제일 나중에 생겨서 새터범이라 부르게 되었다.

호랑이가 출몰하던 지역

호랑이 관련 지명들 중에서는, 맹수로 인하여 위험한 고개에 관한 지명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 ‘호치’마을은 옛날 산이 울창하여 범이 나왔다 하여 범고개, 호치(虎峙)라고했다 합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감리에는 ‘천왕재’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행인 1,000명이 모여야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도둑과 호랑이가 있었던 험한 고개로 천왕(千往)재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고개의 옛 이름은 ‘범데미’입니다. 서울과 구리시의 경계에 있으며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고개가 있는데, 이곳을 지날 때면 항상 범에게 위협을 받고 범이 뛰어나니던 곳이라 하여 범데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토에서 호랑이와 관련하여 ‘범골’이나 ‘호골’, ‘호동’ 등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지명이 붙은 곳들 중에서는 우선 호랑이가 많이 출몰했다는 이유로 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의 ‘호골’,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의 ‘호동’ 등은 모두 호랑이가 많이 출몰했다 하여 붙은 이름들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의 ‘범든골’은 산중마을이라 맹수가 많았는데, 특히 범이 많았다 하여 ‘범든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지금도 마을 인근에서 호랑이가 살았던 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虎院洞)은 ‘범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곳은 밤이 되면 도봉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마을을 배회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해지며, 마을 뒷산에 바로 호랑이굴이 있다 하여 범굴이라고 불렀다 전해집니다.

호랑이를 닮은 형태로 인한 지명

우리 국토 곳곳에는 호랑이를 닮은 바위가 참 많은 모양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의 ‘호암’은 마을 뒤에 범(虎)모양의 바위가 있어 ‘범바위굴’이라 불렀고, 이 이름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 때 한자음표기로 ‘호암(虎岩)’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의 ‘범바위’도 마을에 범처럼 생긴 바위가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하며,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의 ‘호암’이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범바위굴’ 등 역시 마을 뒤에 범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범바위굴 또는 호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범직이’마을은 다른 곳보다도 유난히 호랑이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

마을 뒷산의 형세가 범이 웅크리고 앉아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범직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항공사진을 통해 호랑이의 형상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 '범적마을' 항공사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은 마을 형태가 호랑이를 닮았다 하여 '호동'이라 불렸습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도 호랑이가 앉아서 내려다 보는 형상이라 하여 '범골'이라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은 원래 '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네 앞산이 마치 호랑이가 누워서 동네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 하여 호동이라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재밌는 이야기

호랑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래되는 지명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는 ‘호곡’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효성이 지극한 상제(喪制)가 시묘살이를 하는데, 3년 동안 늘 큰 호랑이가 상제를 따라 다니며 보호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 묘가 있는 산을 호곡산이라 하였으며, 마을 이름 또한 호곡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에는 ‘승삼’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마을이 있습니다. 옛 전설에 의하면, 고려 때 승려 세 명이 이 마을 뒷산에서 내려와 관가의 앞뜰로 들어가더니, 놀랍게도 호랑이로 변한 다음 큰 소리로 울면서 달아나 월성군 강동면 명호리로 숨었다고 하여 이곳을 승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에는 ‘견두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원래는 호두산이라 하였는데, 그 당시 남원 일대에서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일이 많이 발생하자, 남원읍내에 호석을 세우고 산의 이름을 견두산으로 개명한 후 호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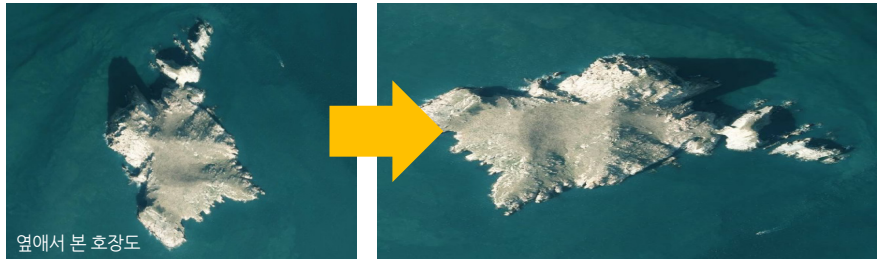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부목재’마을은, 원래부터 깊은 산골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하루는 목동이 나무를 하러 갔다 오는 길에 호랑이와 싸우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도와주었다는 전설이 있어 부목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곱새기’마을의 다른 이름은 ‘호색동’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손씨의 조상이 약 200여 년 전에 터를 잡으러 다닐 때, 호랑이의 인도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해서 호색동이라 하며 우리말로 부르기 쉽게 곱새기라고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다에 나타나는 호랑이 지명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은 대체로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호랑이가 산에 서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해안 도서 지역에서 호랑이 관련 지명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에는 ‘호장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가는 어부들과 선원들이 이 섬의 형태가 호랑이와 흡사하다 하여 ‘호장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옆에서 본 호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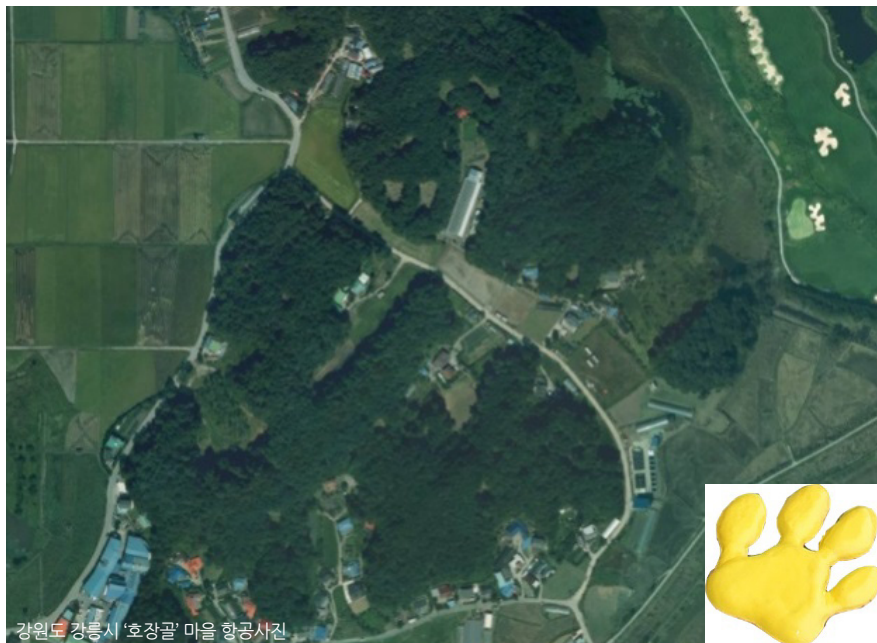


호랑이
[寅]

호랑이 발자국 관련 지명

호랑이 관련 지명들은 대체로 그 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한 지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엷드린 모습이나 호랑이 머리의 모습처럼 특징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지만, 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명 중에는 호랑이의 ‘발자국’과 관련된 지명도 있어서 눈길을 끄니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의 ‘호장골’은 마을 인근 산의 모양이 마치 호랑이의 발과 같다 하여 ‘호랑이(虎)’의 ‘손바닥(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강원도 강릉시 ‘호장골’ 마을 항공사진

2010년 경인년(庚寅年)에 실행된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토에 나타나는 십이지와 관련된 지명에 관한 조사 중 첫 번째로 시행된 것입니다.

용호상박(龍虎相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상 속 영물인 용만큼이나 용맹하고 강인한 동물이 바로 호랑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에는 호랑이가 그만큼 날렵하고 민첩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노나라의 사상가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고 했던 것처럼, 호랑이는 두렵고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한 사람을 ‘호랑이에게 물렸다’고 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호랑이가 물어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러 그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반도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호랑이가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태백산 일대에는 호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뼈를 수습한 ‘호식총(虎食塚)’이라는 돌무덤이 지금까지도 다수 남아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를 전담하는 무장인 ‘착호장(捉虎將)’과 병사인 ‘착호갑사(捉虎甲士)’로 구성된 중앙부대인 ‘착호군’을 두었으며, 지방에도 ‘착호인’이라는 호랑이 전담 병사를 두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이 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의 결과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호랑이의 존재를 경험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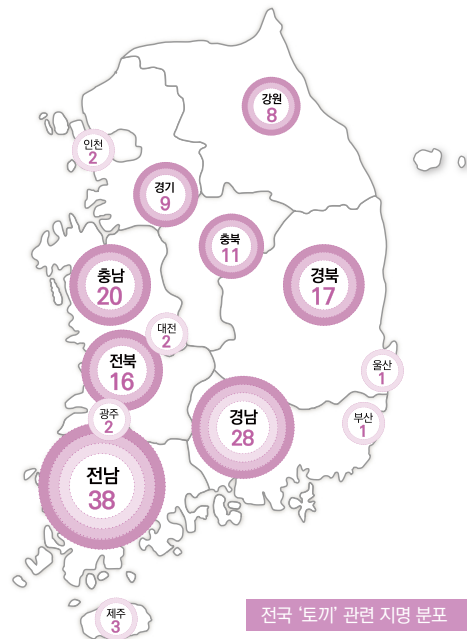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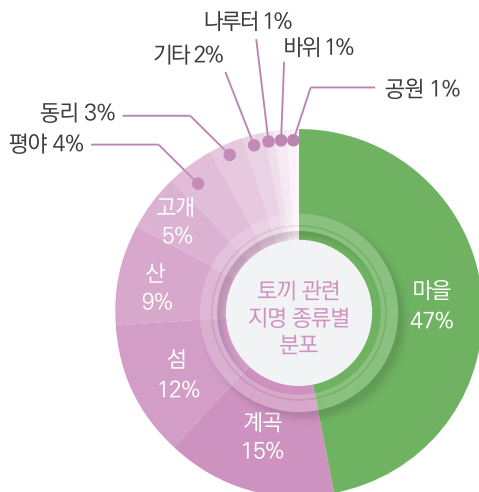
돼지

옥토망월(玉兔望月)의 달과 ‘토끼’

토끼는 십이지의 열두 동물 중 호랑이의 뒤를 이어 등장하며, 십이지 중 네 번째 글자 ‘묘(卯)’에 해당합니다. 하루 중 새벽 5시에서 새벽 7시 사이를 묘시(卯時)라고 부르며, 방향으로는 정동(正東)을, 달로는 음력 2월을 가리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해학과 풍자가 담긴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나 달에서 방아를 쥔 달토끼 이야기 등은 우리 조상들의 상상 속에 나타나는 토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토끼와 관련된 지명에 대한 조사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을 앞두고 시행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토에서 토끼와 관련된 지명은 모두 158개로, 다른 십이지 동물들과 비교하여 다소 적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전라남도가 3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28개, 충청남도 20개, 경상북도 1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74개, 계곡 명칭이 24개, 섬 명칭이 19개, 산 명칭 14개 등이 있었습니다.



글자별로 살펴보면 충남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에 있는 고개 ‘작은토끼재’와 같이 ‘토끼’가 들어가 있는 지명은 81개, 지명의 한자에 토끼 토(兔)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이 39개, 토끼 묘(卯)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이 6개가 있었으며, 그 밖에 지명에는 토끼를 의미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지명의 유래에 토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지명이 32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양이 토끼를 닮아 붙은 지명

지세가 토끼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은 모두 77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모양, 토끼가 달을 물고 있는 모양 등 토끼와 달을 연관 지은 유래를 가진 지명이 많았으며 그 외에 토끼가 실제로 존재하여 유래된 지명 또는 설화를 바탕으로 생긴 지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마을 또는 산이나 고개, 커다란 바위 등의 형태가 토끼와 유사하여 이름이 붙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토현리는 '토고개'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곳의 지형이 토끼처럼 생겨서 토고개 또는 토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과 안성시 양성면에 걸쳐 있는 산도 토끼를 닮아 '묘봉'이라 이름이 붙여졌으며, 그밖에도 전남 영광군 홍농읍 단덕리 '토굴', 부산 연제구 연산동 '토곡' 등도 모두 마을 형태가 토끼를 닮아서 붙게 된 경우들입니다.

토끼가 많아서 붙은 지명

실제로 토끼들이 자주 나타나거나 많이 살아서 유래된 지명도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토끼실’은 동네 뒷산에 토끼가 많이 산다하여 그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토도’라는 섬은 예전에 토끼를 기르던 섬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토구재’는 토끼가 자주 다니던 길목의 고개라 하여 유래된 지명입니다.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토골’은, 주치골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양지 바른 곳이라 산토끼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 토골이라 불렀다고 전해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풍수지리와 옥토망월 (玉兔望月)

토끼와 관련하여 풍수지리에서 명당으로 손꼽는 ‘옥토망월(玉兔望月)’의 지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형이 마치 땅에서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솟아있고, 달처럼 둥글게 생긴 산이 주위를 두르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토끼와 관련한 지명 중에서는 이 ‘옥토망월’과 관련된 이름들이 21개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옥동’은 마을 안산이 토끼형이기 때문에 ‘옥터골’이라는 뜻의 옥동(玉洞)이라 불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경남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는 뒷산 이름이 달구산이라 하는데, 이 산 위로 달이 뜨면 그 달 속에서 계수나무와 토끼가 보인다 하여 이 마을을 ‘토촌’이라 불렀다고 전해지며, 전남 나주시 송월동의 옛 이름 ‘망월촌’도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형태라는 데서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광주 북구 석곡동은 ‘분토’라는 옛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음력 정월 대보름달이 옥과 같이 둥글게 떠오르고 달 속에 토끼가 달아난다 해서 옥토망월의 분토(粉土)마을이라 칭했다고 전해집니다.

전북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도 ‘분토’라고 불렸습니다. 약 230년 전에 금산 김씨 중 한 사람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생겼는데, 이곳이 용이 비를 토하고 노적봉이 있어 자손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좋은 터이며, 옥토끼가 달을 보면서 한 해의 안녕을 축원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밖에도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분토골’도 옥토망월의 지세는 아니지만, 풍수지리학상 달리는 토끼의 모양과 격을 갖췄다 하여 분토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이 마을은 지금도 마을 인근 숲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봉화군 재산면 상리도 ‘묘골’이라 하였는데, 풍수지리에 의하면 이곳 지형이 토끼가 앉아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별주부 전설의 고장 1 - 비토섬

조사를 통해 나타난 토끼 관련 지명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별주부 설화’와 관련된 이름들이 붙은 곳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별주부 설화를 바탕으로 한 지명 중에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의 섬 이름 ‘비토섬’은 토끼가 용궁에서 거북이를 타고 육지로 나오던 중 바다에 비친 섬(월등도)의 그림자를 육지로 착각하여 거북이 등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비토섬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천황봉에서 마주보고 있는 육지의 돌 끝을 생활터전으로 살던 토끼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끼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봄날 바닷가에 있는 부부에게 남해 용왕의 사자 별주부가 찾아와 용궁을 구경시켜주고 높은 벼슬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이들을 속이고, 이에 넘어간 남편 토끼는 임신한 아내 토끼를 남겨두고 별주부의 등에 타고 남해 바다 용궁으로 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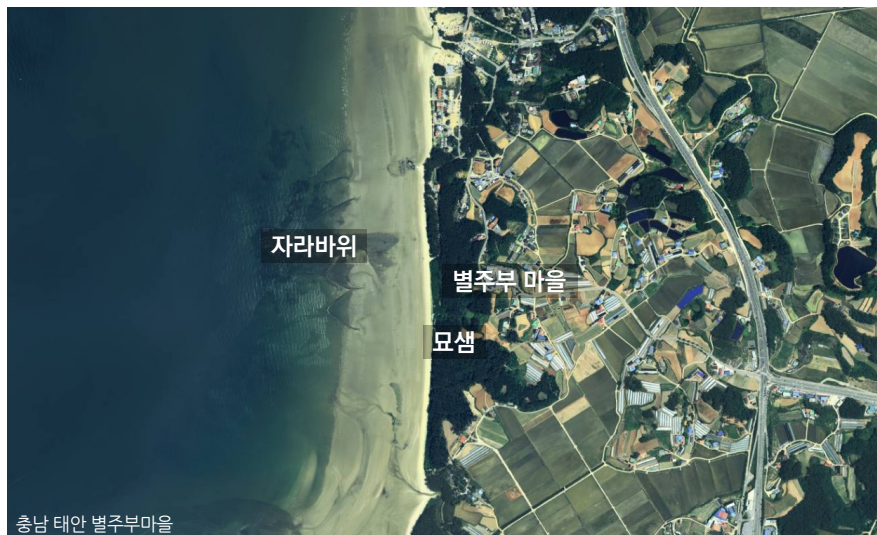
그리고 사실은 용왕이 토끼의 간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 토끼가 “소생은 육지에 살고 있는 많은 짐승과는 매우 달라서 달과 함께 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짐승인지라 한 달 중 달이 커지고 있는 선보름 15일 동안은 간을 월등도 계수나무(해송)에 걸어두고 후보름 15일은 소생의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마침 선보름에 해당되는 음력 15일인지라 내가 살고 있는 비토섬 월등도 산중턱에 있는 바람 잘 통하고 그늘진 계수나무에 걸어두고 왔습니다.”며 용왕을 속였습니다.

이에 용왕이 토끼를 다시 돌려보냈지만, 월등도 앞바다에 당도하자마자 남편 토끼가 달빛에 반사된 육지를 잘못 보고 너무 일찍 뛰어오르는 바람에 바닷물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바다에 빠진 토끼는 토끼섬이 되었고, 처벌을 두려워한 별주부가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서 거북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월등도(月登島)를 돌당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토끼가 용궁에 잡혀간 후 돌아와 처음 당도한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편 남편을 용궁으로 떠나보낸 아내 토끼는 매일 육지 돌끝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목이 빠지게 남편 오기를 기다리다 바위 끝에서 떨어져 죽어 섬이 된 것이 목섬이며, 따라서 목섬에는 지금도 그때 죽은 아내 토끼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별주부 전설의 고장 2 - 별주부 마을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는 따로 ‘별주부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자라바위와 묘샘 등 설화의 여러 요소들이 마을과 주변의 자연물들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충남 태안 별주부마을 자라바위

자라바위는 감언이설로 별주부(자라)의 등에 업혀 수궁에 들어갔던 토끼가 재치를 발휘하여 구사일생으로 육지에 돌아오게 되자 “간을 빼 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냐?”며 자라를 놀려 대고는 숲으로 달아나자, 탄식하며 용왕을 향한 채로 죽은 자라가 변한 바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묘샘은 토끼가 별주부(자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라의 등에 업혀 수궁(水宮)에 들어간 후 용왕이 토끼를 결박하여 간을 내라는 명이 있자 “토끼의 간을 떼어 청산녹수 맑은 샘에 씻어 감추어 놓고 왔다”고 했던 샘이라는 이야기가 담긴 곳입니다.

그밖에도 별주부와 토끼에 얽힌 설화가 담긴 ‘용새골’과 ‘노루미재’ 등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토끼를 닮은 섬들

그밖에도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 인근에는 ‘토끼섬’이라는 무인도가 있으며, 특이하게도 섬 전체에 해송이 아니라 적송이 많이 자라는 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인근에도 ‘토끼섬’이 있으며, 그밖에도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앞바다에도 ‘토끼섬’이 있고, 전남 여수시 장수리와 조발리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의 이름도 ‘토도’입니다. 모두 섬의 모양이 마치 토끼를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들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토끼 관련 지명에서 나타나는 ‘달’의 이미지였습니다. ‘옥토망월(玉兔望月)’이라는 풍수지리적 요소는 우리 조상들이 지형과 기후에 따른 입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별주부 설화에서도 토끼는 달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진 동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영향은 지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토끼 관련 지명들 전체 158개 중 마을 이름이 절반에 가까운 74개를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산을 하며 민첩하게 뛰어다니는 토끼의 특징과 연관하여 풍성함과 왕성함, 즉 번창을 향한 기원을 마을의 이름에 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농경생활을 주업으로 하던 우리 조상들이 풍요를 기원하던 그 마음이 마을의 이름에 그대로 담기게 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狡免三窟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

-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中.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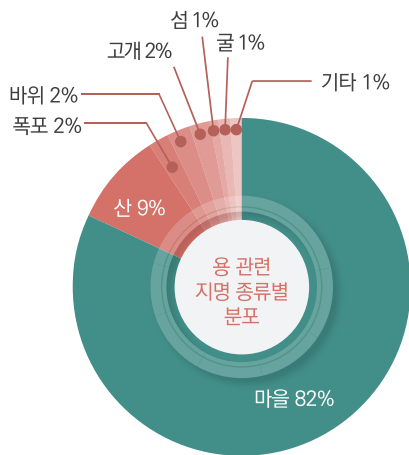
제왕의 품격과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용’

용은 십이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이며, 열두 동물 중 유일하게 실재하지 않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십이지 중 글자로는 ‘진(辰)’에 해당하는데, 시간으로 진시(辰時)는 묘시에 이어 아침 7 시에서 아침 9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방향으로는 동남동(東南東)을, 달로는 음력 3월을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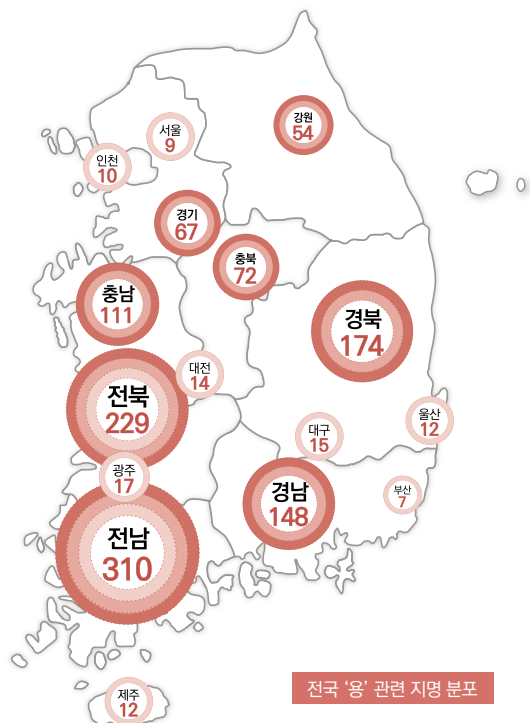
동아시아 지역에서 용(龍)은 깊은 못이나 큰 강 또는 바다에 살며,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영수(靈獸)로 여겨졌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용왕(龍王)’이며, 그밖에도 용은 여의주라는 구슬을 통해 온갖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용에 대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수많은 역대 왕조들이 용을 제왕의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군주와 태자가 입는 옷을 곤룡포(口龍袍)라 부르며, 조선시대에는 왕이 앉아 나라를 다스리고 정무를 돌볼 때 앉는 의자를 용상(龍床)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012년 임진년(壬辰年)을 앞두고 시행된 용 관련 지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모두 1,261개의 지명이 용과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전라남도가 310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229개, 경상북도 174개, 경상남도 14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1,040개, 산 명칭이 110개, 폭포 명칭이 24개, 바위 명칭이 23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용과 관련된 지명들 중에는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 407개, 그 중에는 머리를 닮은 모양이 110개로 가장 많으며, 기타 뿔이나 목, 코, 꼬리 등을 닮았다는 모습을 묘사한 지명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용이 승천하거나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는 동작묘사 등의 유래를 가진 지명은 246개로 나타났으며, 풍수관련 유래를 가진 지명도 77개로 나타났습니다.



용이 사는 물과 지명

조사에 의하면 마을 인근에 있는 물과 용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 나타나는 지명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용이 물을 다스리는 수신(水神)이자 바다를 다스리는 해신(海神)으로 추앙받는 영수(靈獸)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는 ‘대용소동(大龍沼洞)’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마을 인근에 있는 용소의 크기가 커서 붙게 된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용담(龍潭)’은 그 못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로부터 비롯된 이름이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용연동(龍淵洞)’은 옛날 이 곳에 큰못이 있었는데 용이 나왔다 해서 용연못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그곳에 마을이 생기자 용연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용이 살던 못이 있다는 의미의 ‘용당(龍塘)’이나 ‘용연(龍淵)’ 등의 지명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의 형태에서 유래한 지명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용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산이 있는 지역에서 용과 산이 연관된 지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용문산(龍門山)’은 본래 이름이 ‘미지산’이었는데, 이성계가 용이 날개를 달고 드나드는 산이라 하여 용문산으로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산에는 수령이 천 년이 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유명한, 신라시대 창건된 불교 사찰인 ‘용문사’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는 강으로 용이 뛰어드는 형태의 산을 ‘용산’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이며,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용두산’도 산 모양이 마치 용의 머리처럼 생긴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제주시 용담2동에도 바위가 용(龍)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용두암(龍頭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용두암을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용과 제주도

제주에서는 특히 용과 관련된 지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용눈이오름’은 산의 분화구에 용이 누워 있다 하는 전설에 의하여 한자로 ‘용와봉’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우리말로 용눈이오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눈이오름 인근에 있는 김녕리에 있는 ‘용두동’은 풍수지리적으로 그 형태가 용의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머리’라고 불렸으며, 한자 표기로 ‘용두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제주시 용담동에는 용이 거주하는 연못이라 하는 ‘용연(龍淵)’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용담동(龍潭洞)’이라는 이름도 연못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곳에서 선사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유래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용두암

제주시에서 용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용두암’일 것입니다. ‘용두암’은 원래 용궁에 살던 용이 하늘로 승천하고자 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라산의 신령이 가지고 있는 옥구슬을 가지면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용(龍)이 그것을 훔쳐 용현계곡을 통해 몸을 숨겨 내려왔지만, 용현계곡이 끝나는 바닷가에서 승천하려다 들키는 바람에 하늘을 날다 한라산 신령의 활을 맞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용은 승천하지 못한 한과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울부짖는 형상으로 굳어 바위가 되어서 지금의 ‘용두암’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용과 관련된 지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섬이라는 특성 상 제주에서는 육지에 비해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용오름을 더욱 자주 목격할 수 있었고, 섬을 자욱하게 뒤덮는 구름과 갑자기 내리치다가 그치는 비 등의 기후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용과 왕(王)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의 나루터는 ‘곡룡진(谷龍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약 400여 년 전 배를 타고 가던 세조가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렀다가 배를 갈아탔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는 ‘웃용상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부터 한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전해지며, 그 이후로 이 마을을 임금님의 침상(寢床)을 놓았다는 데서 이곳 윗마을을 ‘웃용상골’, 또는 ‘상용상동(上龍床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에 사는 용과 지명



검룡소 (출처: 태백시청)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儉龍沼’는 한강의 발원지로 창죽동 금대봉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대봉’ 기슭의 ‘제당굴샘’과 ‘고목나무샘’, ‘물골’의 ‘물구녕 석간수’와 ‘예터굴’에서 솟아나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이곳 ‘검룡소’에서 다시 솟아나오면서 비로소 514km의 한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서해 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먼 쪽의 상류 연못을 찾아 헤매던 와중에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용은 이곳이 가장 먼 상류의 연못임을 확인한 다음 연못에 들어가 용이 되기 위한 수업을 시작했는데, 검룡소 계곡은 그 때 연못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 친 자국이라고 합니다.

용의 모습은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일부분이 모여 완성됩니다. 용에 관한 여러 기록에 따르면 용의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코는 돼지와 같으며, 목덜미에서 몸통은 뱀, 배는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그리고 다리와 손바닥은 호랑이 혹은 독수리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용곡(龍谷)’이라는 지명이 우리 국토의 여러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계곡이나 폭포 또는 산맥 등의 길고 구불구불한 형태의 지형에 대하여 묘사할 때 뱀보다는 용을 더욱 선호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용이 가지는 상징성이 강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발톱이 다섯 개인 용은 황제를, 네 개인 용은 황제의 아래인 왕이나 황태자를 의미하는 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등용문(登龍門)’이라는 고사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용과 관련된 지명에는 가족과 자손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으로 가니 용 한 마리가 검은 옥대(玉帶)를 받들어 바쳤다.

왕이 용을 맞아 함께 자리에 앉으며 묻기를,

“이 산과 대나무가 갈라지고 혹은 합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용이 말하기를,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는 합한 연후에 소리가 나는 물건이 되니,

성왕(聖王)께서는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실 징조입니다.

왕께서는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 일연(一然),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만파식적萬波息笛」 中.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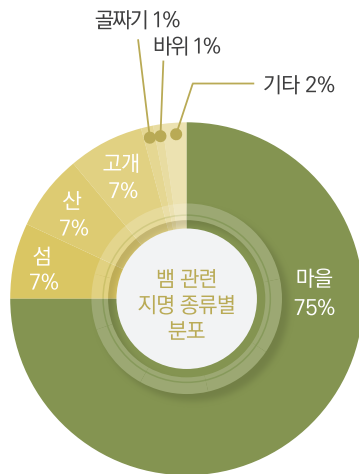
돼지

길게 굽이치는 땅에 서린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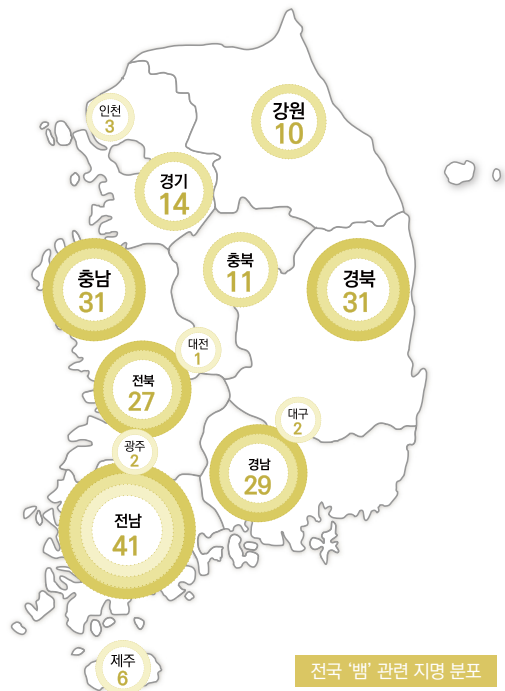
뱀은 십이지 중에서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로, 글자로는 ‘사(巳)’에 해당합니다. 시간으로 사시(巳時)는 진시에 이어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를 가리키며, 방향으로는 남남동(南南東)을, 달로는 음력 4월을 가리키면서 여름이 시작됩니다.

뱀은 예로부터 우리의 전통 속에서 영물(靈物)로 추앙받아왔습니다. 허물을 벗는 뱀의 생태적 특성으로부터 사람들은 뱀이 영생불사(永生不死)한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몸이 하얀 색인 백사(白蛇)는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졌으며, 한국의 전통 신앙 속에서 구렁이는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존중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언제나 인간을 위협하는 두려운 동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뱀에게는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인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뱀을 뜻하는 글자 사(巳)를 거꾸로 뒤집어 대문에 붙여 집안으로 뱀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원하기도 했으며, 또는 새끼줄을 불에 그슬림으로써 뱀이 위협을 느껴 멀어지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뱀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속성은 우리 국토의 지명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을 앞두고 시행된 조사에서, 우리 국토의 지명들 중 모두 208개의 지명이 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십이지 동물들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4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32개, 경상남도 3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남부 지방에 뱀 관련 지명이 많이 분포하는 것은 농경생활에서 뱀과 마주치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157개로 가장 많았으며, 섬의 명칭이 15개, 고개와 산의 명칭이 14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이 많아도 뱀골, 뱀을 닮아도 뱀골

뱀과 관련된 지명들 중 ‘뱀골’이라는 이름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순우리말 ‘뱀’에 마을을 뜻하는 순우리말 ‘골’이 결합한 이 이름은 마을의 모양이 마치 뱀처럼 길기 때문에 붙게 된 이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뱀골’은 뱀처럼 길게 생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뱀골이라 하였습니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장사골’도, 마을 앞 지형이 긴 뱀과 같다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강원도 춘천군 서면 안보리의 ‘뱀길이’마을은, 마을에 있는 골짜기가 마치 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계곡과 마을 이름이 모두 ‘뱀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장사골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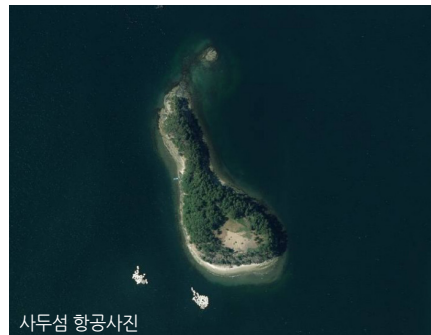
반면 산이 많고 수풀이 우거진 곳 한반도에서는 뱀이 유독 많이 나오는 마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의 ‘뱀골’은 예전에 뱀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게 된 이름이라고 하며,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리의 ‘뱀골’도 마찬가지로 뱀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뱀을 닮은 산과 섬

그밖에도 뱀을 닮은 형태로 인해 이름이 붙은 곳들 중에는 산과 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뱀거리’ 마을은 뒷산 모양이 뱀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며,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의 ‘배미재’는 산과 고개의 이름이 뱀처럼 생겼다 하여 원래는 ‘뱀재’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지금의 이름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의 ‘뱀재산’도 산세가 뱀을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비사도는 옛날 비사(飛巳, 하늘을 나는 뱀)가 날아와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와 비사도라고 불린다고 전해지며,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사두섬은 섬 모양이 뱀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풍수지리와 뱀 지명



풍수지리에서는 뱀이 개구리를 쫓아가는 지형인 ‘장사추와형(長蛇追蛙形)’이 먹을 것이 풍부한 좋은 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사도’마을은, 옛날 어느 풍수가가 이곳을 지나다가 이곳 지형이 뱀 모양이며 마을 앞에 와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는 뱀이 개구리를 잡기위하여 건너가는 모습이라는 뜻이라고 하여 와도와 대비되는 ‘사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사성’마을도 마찬가지로 장사추와형의 지형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남 광양시 골약동 ‘금곡’마을은, 지형이 금뱀이 엎드려 숨어 있는 금사복지혈(金巳伏池穴)이라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전남 해남군 현산면 덕흥리의 경우에는 옛날 어느 풍수가 마을의 뒷산의 혈이 뱀이 숲속에서 나와 개구리를 쫓는 혈이기 때문에, 마을 앞에 정자목을 많이 심으면 마을이 덕을 보고 흥하리라 일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풍수가의 말대로 나무를 많이 심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마을 이름을 덕흥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뱀이 출현하는 이야기와 지명

뱀의 출현 설화와 관련된 지명도 있습니다. 경주시 남면 구암리의 마을 이름 ‘구뱀이’는 이 마을에 귀가 달린 뱀이 나왔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구수재’는 아홉 마리 구렁이가 재를 못 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고히리 ‘장사동’은 마을이 큰 구렁이의 모습을 닮았는데,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뱀의 영생불사(永生不死)의 속성을 반영하여 그 지역 주민은 장수한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뱀골고개(뱀골재)’는 고개를 넘을 때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큰 뱀을 만난다고 하여 뱀을 경각심을 주는 존재로 생각했음을 지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사전(巳田)’은 원래 ‘뱀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에 이곳에 큰 뱀이 나타나 사람들이 곤란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나타나 불경을 읽자 뱀이 사라졌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웃절곡’에도 뱀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옛날 이 마을 뒤 골짜기에 절이 있었는데, 하루는 스님이 길을 가다가 뱀 두 마리가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스님에게 자기들의 탑을 쌓아 달라 부탁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절에 돌아온 스님은 탑을 보름 안에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탑을 쌓았고, 마지막 돌을 올릴 때 뱀이 나타나 우리들의 혼령이 깃든 탑이니 잘 돌봐 달라 하고는 하늘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 스님이 눈을 뜨자 탑과 절이 점차 파손되고 터만 남아, 그곳을 ‘웃절’이라 부르고 마을 이름을 ‘웃절곡’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영물로서의 뱀과 관련된 지명



뱀신을 모셔두는 곳-칠성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는 뱀을 신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주도에서는 곡식을 축내는 쥐의 천적인 뱀을 곡물의 신이나 재복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칠성은 곡물을 수호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뱀신으로, 고팡에 모시는 칠성을 ‘안칠성’, 마당 뒷곁에 모시는 칠성을 ‘뱃칠성’이라고 부릅니다. 뱃칠성은 땅 위에 기와장을 깔고 그 위에 오곡의 씨를 놓은 뒤 다시 그 위에 비가 새지 않도록 주렁이를 덮어 모시는데, 이를 ‘칠성눌’이라 합니다.

*고팡: 제주의 전통가옥에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의 접경지역에는 형산(兄山)과 제산(弟山)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는 큰 산이 하나 있을 뿐이며, 그 곁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호수 주변에서 자주 물난리가 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이 승천하면서 호수를 가두고 있는 산을 갈라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승천을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형상을 ‘뱀’이라고 칭했지만 유금이라는 한 소년이 왕을 ‘용’이라고 불러준 덕분에 승천에 성공하게 되고 산을 가르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갈라진 두 산은 마치 형제와 같다 하여 사람들은 형산과 제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에는 ‘형산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용이라고 불러준 소년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생긴 들판에는 ‘유금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경북 경주시 유금리라고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뱀과 연관된 지명

뱀이 공포의 대상으로 유래된 지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김녕사굴’과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덕령’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인간을 해치려는 사악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뱀과 연관된 지명

맹수가 없는 제주도에서 뱀은 승배의 대상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김녕사굴은 총 길이가 705m이며 모양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흡사한 꾸불꾸불한 동굴의 형태 때문에 오래전부터 김녕사굴(金寧蛇窟)로 불렸습니다.

김녕사굴에는 슬프고도 무서운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동굴 속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매년 처녀를 제물로 올려 큰굿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물과 굿을 올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쳐 흉년이 들게 하는 등 온갖 변고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종 때 19세의 어린 나이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한 서련(徐隣)이 그 사실을 듣고 분개하여 구렁이를 군졸들과 함께 퇴치했습니다.



김녕사굴 내부



김녕사굴 전설을 형상화한
금능석물원 휴민상

다른 전설에서는 서련이 아니라 ‘이삼만(李三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김녕사굴의 뱀을 죽인 후로는 정월 사일(巳日)에 이삼만의 이름을 쓴 종이를 붙이면 뱀이 달아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용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뱀, 이무기



용이 되고 싶었던 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지명도 있습니다. 서귀포시 송산동 ‘섣섬’은 커다란 귀가 달린 뱀이 용이 되고자 섣섬과 지귀도 사이에 숨겨놓은 야광주를 찾으려고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끝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비가 오면 섣섬의 꼭대기에는 항상 안개가 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용이 되지 못하고 죽은 뱀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시 불현동 ‘쇠목’마을은,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입구에 있는 폭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후 갑자기 소의 목이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폭포수에서 살고 있던 이무기가 나와 소의 목을 잘라 갔던 것이라 하여 ‘쇠목’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외에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억산(億山)’은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이무기가 되자 억울하여 꼬리로 산을 쳤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는 등, 뱀과 관련한 지명들 중에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와 관련된 이름들이 우리 국토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에는 ‘용등봉’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마을 뒷산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 천년 묵은 뱀이 용이 되어 승천하려다 임신한 여인을 보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위에 떨어졌다 하여 이 봉우리를 용등봉(龍登峰)이라 하고 이 마을의 이름도 이와 같이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전통 신앙 속에서 ‘업신(업왕신)’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는 공간을 지키는 신으로, 그 집안의 살림을 늘려주고 재산을 지켜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업신은 주로 구렁이의 형태로 나타나 집안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고 믿어졌으며, 따라서 집에 들어온 구렁이를 흘대할 경우 그 집은 패가망신 한다고까지 여겨졌습니다.

반면 뱀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무신(武臣)이었던 김시민은 8세 때 가축들에게 해를 입힌 큰 뱀을 활로 쏘아 죽였다는 무용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설화 ‘은혜 갇은 까치’ 이야기에서 뱀은 새와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동물이자 영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이 되려다 실패한 이무기가 흥포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도 우리 국토 도처에서 전래되고 있습니다.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50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물속에서 공을 쌓고 수행한 뱀’을 이르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이무기는 다시 500년 동안 더 수행을 쌓아야만 비로소 승천하면서 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다란 산이 형산과 제산으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물길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형산강의 탄생 설화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천년의 수행을 모두 마친 이무기가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을 ‘뱀’이라 부르면 승천에 실패하고 반대로 ‘용’이라 불러줄 때에야 비로소 승천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십이지 중 뱀은 항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들어주기 위해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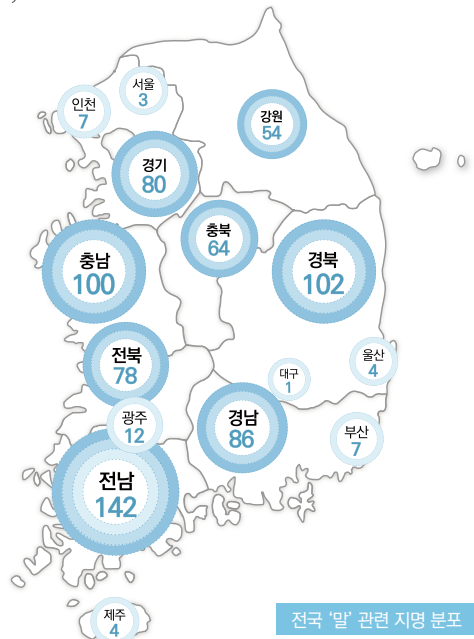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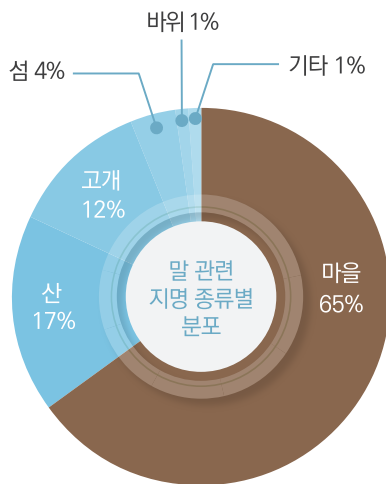
돼지

머나먼 여정에 나타나는 역참(驛站)과 ‘말’

말은 십이지의 열두 동물 중 일곱 번째로 등장하며, 글자로는 ‘오(午)’에 해당합니다. 시간으로 오시(午時)는 사시에 이어지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를 가리키며, 특별히 오시의 중간 시간인 낮 12시를 가리키는 ‘오시 정(午時 正)’은 현대에는 정오(正午)라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방향으로서는 정남(正南) 방향을, 달로는 음력 5월을 가리키며 하루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를 포함하는 한여름에 해당합니다.

말은 예로부터 인간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동물들 중 가장 빠르고 잘 달리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게다가 말은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로서 인간과 교감하는 능력이 좋고 기억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잘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말은 사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신호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인류의 가장 오래 된 운송수단 중 하나이자 이동수단이었고, 전쟁과 전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전략물자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갑오년(甲午年)을 앞두고 시행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50만 여 개 지명 중 744개가 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말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142개가 발견된 전라남도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상 북도에 102개, 충청남도 100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명들 중에는 ‘마산’이라는 이름이 49개로 나타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천마산’이라는 명칭도 24개로 나타났습니다.

말의 다양한 모습

먼저 말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게 된 지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울면 산양리의 ‘마이산’이나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있는 ‘마이산’ 등은 모두 산봉우리의 모양이 말의 귀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때로는 부르기 쉽게 ‘매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마이산 항공사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는 ‘상마산’과 ‘하마산’ 마을이 있습니다. 두 마을의 동쪽에 있는 산이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라 하여 윗마을을 ‘상마산’, 아랫마을을 ‘하마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 ‘마령재’는 산이 말의 형상이며 그 말의 안장 자리에 고개가 있다 하여 마령재라 한다고 전해집니다.

교통의 중심이었던 역(驛)

말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지명을 통해 말과 관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시 지친 말을 교환하고 쉬게 했던 역(驛)의 흔적이 지명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역(驛)과 관련한 지명으로 서울시 양재동 일대를 지칭하는 ‘말죽거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마리의 말을 마련해 두고 공문을 전달할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에게 말을 제공해 주거나 바꾸어 주던 일을 했던 곳으로, 옛 지도에는 마죽거리(馬竹巨里), 마죽거(馬竹巨)등으로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말죽거리는 이곳의 역(驛)에서 여행자들이 타고 온 말에게 죽을 끓여 먹였던 데서 유래 되었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인조2년(1624)년 2월 8일에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하여 남도로 가는 길에 양재역에 이르러 허기지고 목이 마를 때 유생 김이(金怡) 등이 팔죽을 쑤어 진상하자 왕이 말 위에서 그것을 마셨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말을 키우는 마장

지금도 그렇지만 전마(戰馬)와 파발마(擺撥馬)를 비롯한 모든 말은 매우 비싸고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말을 키우고 직접 관리하는 장소의 흔적이 지금도 지명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말방’ 마을은, 이곳에 옛날에 말을 키우고 돌보는 마방이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감목관(監牧官)을 파견해 말을 키우던 국영 목장의 흔적과 함께 ‘말봉재’라는 지명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말을 키우기 위해 쌓은 석책(돌 울타리)의 길이가 약 8km에 달했다고 하며, 말이 드나들던 돌문을 시작으로 동해면 흥환리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아직까지도 약 5km 가량의 석책이 남아있어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제주도는 원나라 시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말 사육지였으며, 현재에도 제주 전역에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리 ‘수마포’는 고려말기에 제주산 조랑말을 원나라로 수송하던 포구였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말 동상



구룡포 목장성 탐방로

그밖에도 전라남도에도 유독 말 관련 지명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의 작은 섬들에 말을 풀어놓고 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승려 엔닌(圓仁)이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신라 시대에 이미 전남 해안의 다도해 여러 섬에 말들을 풀어놓고 키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승되는 지명

말은 신화와 전설의 주제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말 ‘천마(天馬)’는 옥황상제가 타고 다니는 말의 이름이며, 왕이 하늘과 교통하게 만드는 신성한 영물입니다. 신화에 나타나는 용의 모습을 한 말인 ‘용마(龍馬)’도 많은 전설에 등장합니다. 주인의 죽음을 말이 슬프게 여기다가 죽은 뒤 ‘천마’나 ‘용마’가 되었다는 전설은 말이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우)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신촌리 ‘천마산’은 신선이 말을 타고 이 산에 내려왔다고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의 ‘천마산’은 옛날에 위인(偉人)이 말을 타고 영도 뒷산까지 뛰어 건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정상에 천마봉에는 그 당시 말이 밟은 바위에 발굽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천마산’이나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의 ‘천마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천마산’처럼, 산의 모양이 천마처럼 생겼다 하여 붙게 된 지명들도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아차산의 최고봉은, 예전에 용마가 나온 곳이라 하여 ‘용마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에 있는 ‘마랑굴’은 옛날 이곳에서 용마가 울었다 하여 붙게 된 이름이며,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교리의 ‘마다리’ 마을은, 약 200여년 전 마을 앞에서 용마가 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의 ‘마루머리’도 예전에 우물에서 용마가 나왔다 하여 마정동 또는 마루머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화원읍 본리리 ‘마비정’은, 주인의 손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명마에 얽힌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이 마을은 이러한 유래를 활용한 ‘벽화마을’로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마비정 우물

마비정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장군이 마을 앞산에 올라가 건너편 산에 있는 바위를 향해 활을 쏘고 말에게 화살보다 늦게 달려가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말이 있는 힘을 다하여 재빨리 달려갔으나 화살을 따라 잡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말은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말을 불쌍히 여겨 ‘마비정’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추모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마을은 청도나 가창 지역에서 한양을 갈 때 말을 타고 지나가던 지역이었는데, 피로가 쌓인 사람들이 종종 정자에서 쉬어갔으며, 말이 물을 마시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말이 원기를 회복하고 빨리 달렸다 하여 말이(馬) 날아가듯(飛) 기운을 차리게 하는 정자(亭) 또는 우물(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오래 전부터 말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북방의 고구려와 발해 등은 말을 타는 생활이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방의 가야 유적지에서도 말에 씌우는 갑옷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초패왕 항우의 애마였던 추(騅), 강력한 무장으로 지금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여포의 적토(赤兔), 그리고 대제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애마였던 부케팔로스(Bucephalus) 등 역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영웅과 위인의 곁에는 명마(名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천마(天馬)와 용마(龍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말은 인간의 활동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혀 주었으며 인간들만으로는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동반자였습니다. 말의 형상이나 말과 관련된 이야기는 역사와 함께 국토 곳곳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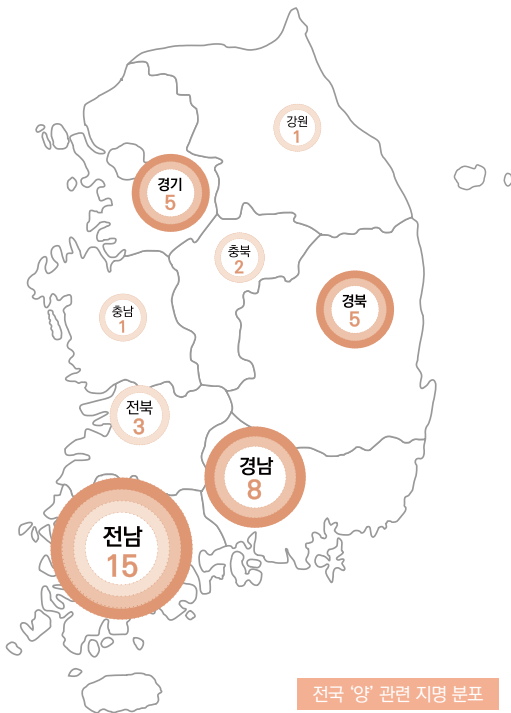
개



돼지

온순한 모습으로 험한 산을 누비는 ‘양’

양은 십이지에서 여덟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십이지의 글자 중에는 ‘미(未)’에 해당합니다. 시간으로는 오시에 이어지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를 미시(未時)라고 하며, 방향으로는 남남서(南南西) 방향을, 달로는 음력 6월을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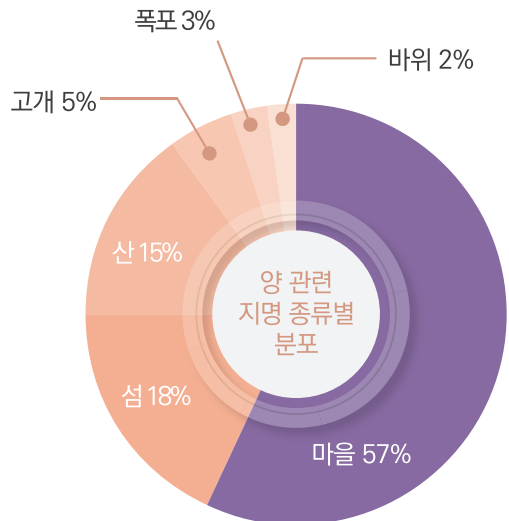


양은 인간이 개 다음으로 가장 오래 전부터 길들여 함께 살아온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8,000년에서 9,000년 전 아나톨리아 반도와 중동 등의 지역에서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해 양을 목축했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을 앞두고 시행된 조사에서는 우리 국토에서 양과 관련된 지명이 모두 40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십이지 동물들과 비교해서 매우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양이 농경 문화보다는 유목문화에 더욱 적합한 동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 관련 지명이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은 전라남도로, 신안군 안좌면 박지리의 ‘노양도’ 등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가 9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의 명칭이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섬의 명칭이 7개, 산의 명칭이 6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의 모습을 닮은 지명

양과 관련된 지명들 중에서는 그 모습이 양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들이 많이 나타났다.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백양동(白羊洞)’은 마을 뒷산의 지형이 염소와 같다 하여 백양동이라 불렀다고 전해지며,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의 ‘전양고개’는 옛날 어느 선비가 이 고개의 형상이 마치 양이 누워있는 형상과 같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과 마장면에 걸쳐 있는 ‘양각산’은 산의 모양이 양의 뿔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양각산 봉우리에는 조선 영조 때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던 이사성(李思晟)이 젊은 시절 무술을 연마했다고 전해지는 치마대(馳馬臺)라 부르는 바위가 있으며, 예로부터 신성하고 영묘한 산으로 여겨져 지금도 이 곳 인근에 마을의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천시 관리에서 본 양각산(브이월드)



『조선지도(이천)』의 양각산 일대



『해동지도』(정읍)의 내장산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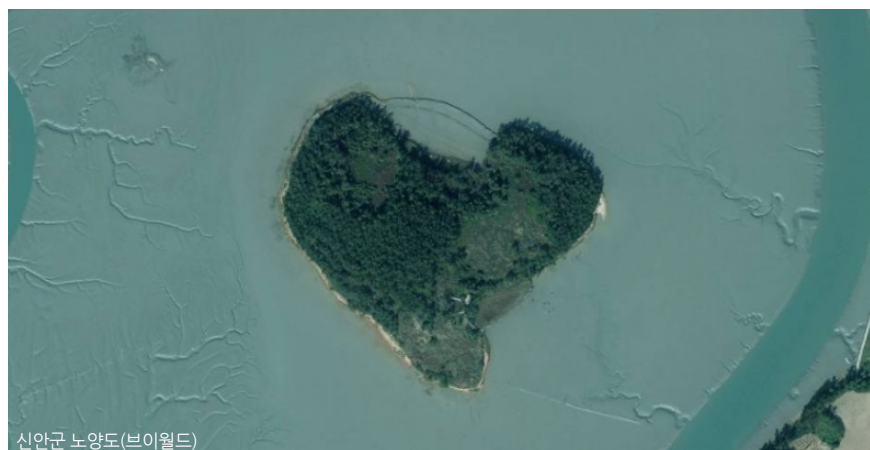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동과 순창군 북흥면에는 명산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유래가 구불구불 이어진 계곡과 산세가 마치 양의 창자와 비슷하다고 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
[未]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양도’는 섬의 모양이 양의 형상처럼 생겼다하여 양도(羊島)라고 부른다고 전해지며,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박지리 ‘노양도’도 섬의 모양이 늙은 양의 모습 같다하여 노양도(老羊島)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양과 관련된 전설을 가진 지명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白巖山)에는 무왕 33년(632년)에 백제의 승려 여환(如幻)이 창건한 ‘백양사’라는 대찰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을 품고 있는 이 사찰의 이름에는 흰 양이 불경 소리를 듣고 깨우침을 얻었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습니다.



약사암 벽화

사실 백양사는 11세기경에 정토사(淨土寺)로, 그리고 15세기 경에는 백암사(白巖寺)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6세기경 다시 정토사로 불렸던 사찰입니다. 그런데 조선 선조 때 환양(喚羊)이라는 고승이 『법화경』을 독송하니 흰 양이 그 소리를 듣고 암자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여 듣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환양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그 독경소리에 깨달음을 얻어 사람의 몸으로 환생한다고 하며 절하며 물러났다고 하고, 이를 계기로 사찰의 이름을 다시 원래의 ‘백양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백양사의 산내 암자인 약사암(藥師庵)에는 이 전설의 내용을 그린 탕화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흔히 성격이 온후하고 유순한 사람을 양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에게 오랜 시간 길들여지면서 점점 순하게 변한 것으로, 원래 야생의 양은 고집이 세고 자립심이 강하며 경우에 따라 거칠게 들이받아 공격하는 강인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원래 ‘양’이라고 불렀던 동물은 지금 우리에게 친숙한 면양(綿羊)이 아닌 산양(山羊)과 염소였습니다. 면양은 고려 시대에야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양’이라는 동물은 크고 단단한 뿔이 달려있으며 날렵하게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는 활동적인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양에게는 무리를 지어 움직일 줄 아는 포용력과 유순함 속에 강인한 투쟁심과 영민함이 내재되어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직한 습성 덕분에 양은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원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 왔던 길을 확인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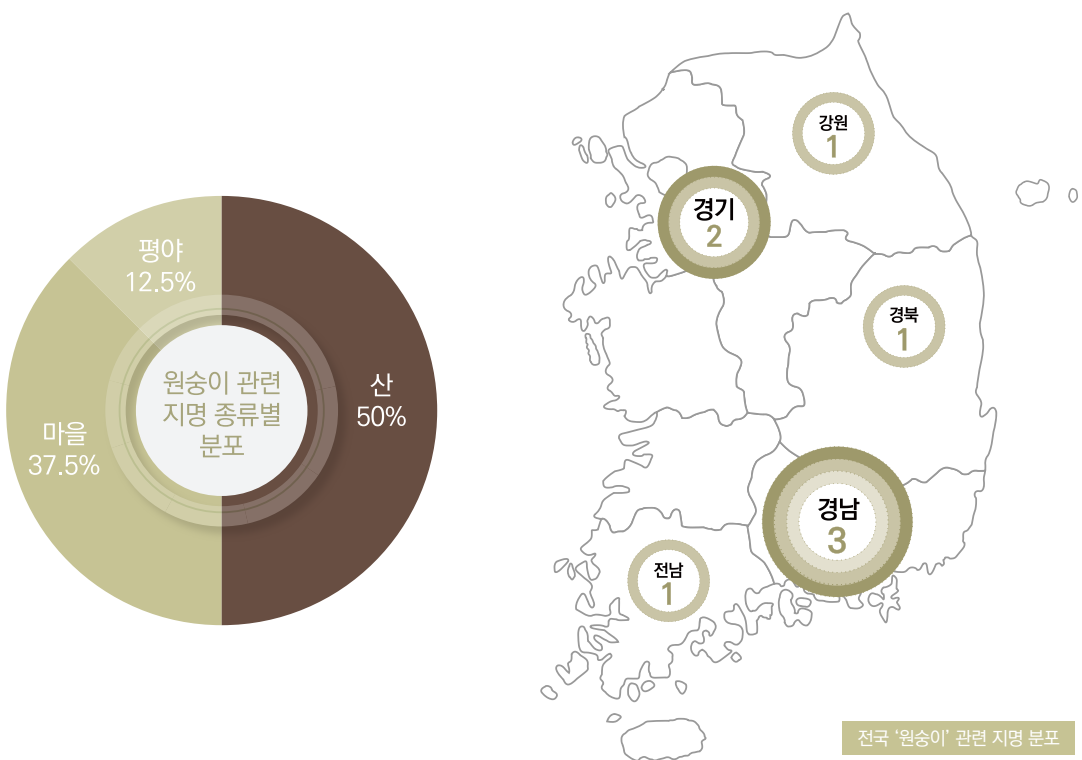
우리 땅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재주꾼 ‘원숭이’

원숭이는 십이지에서 아홉 번째로 등장하며, 십이지의 글자 중에는 ‘신(申)’에 해당합니다. 시간으로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를 신시(申時)라고 하며, 방향으로는 서남서(西南西) 방향을, 달로는 음력 7월을 가리키며 이때부터 가을이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 원숭이가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한 중국과 일본을 통해 원숭이라는 동물의 존재와 특성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우리 문화에서도 원숭이는 지혜롭고 재주가 뛰어나며, 여러 나무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날렵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이하며 수행된 조사에 의하면 원숭이 관련 지명은 총 8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십이지 동물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숭이를 실제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를 뜻하는 순우리말은 ‘납’으로, 여기에서 원숭이를 이르는 ‘잔나비’라는 말도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토에 나타나는 원숭이 관련 지명에도 ‘원(猿)’과 ‘납’이라는 명칭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금원숭이의 전설

경상남도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 위치한 금원산(金猿山)은, 이름 그대로 황금원숭이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옛날 이 산에서 금빛의 원숭이가 나타나 날뛰자 한 도사가 원숭이를 바위 속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금원산의 이러한 전설은 아마도 고려 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명나라의 소설 서유기(西遊記)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원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상천마을에는 지명유래를 활용한 벽화를 비롯한 ‘황금 원숭이 마을’의 문화요소들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금원산



금원산 '황금 원숭이 마을'



금원산 '황금 원숭이 마을'

한편 금원산 인근의 거창군 위천면과 북상면 일대는 옛날 ‘원숭이가 뛰어놀고 학이 깃드는 곳’이라는 뜻의 원학동(猿鶴洞)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원숭이가 등장하는 역사와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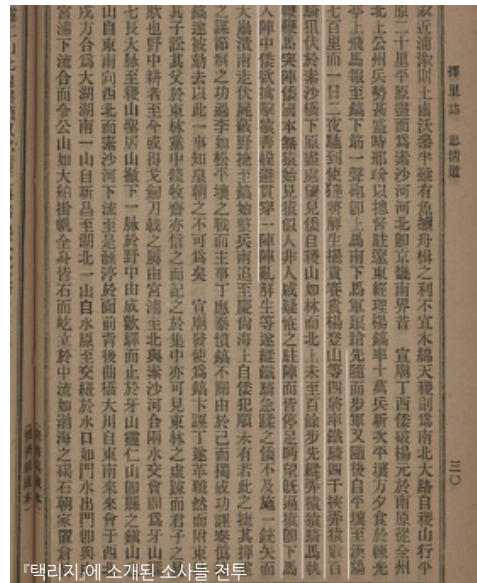
‘소사(素砂)’는 경기 안성과 평택, 그리고 충남 천안시 경계에 있는 큰 들판의 이름입니다. 흔히 ‘소사들’ 또는 ‘소사평’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삼남대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삼남대로(三南大路)란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작진이나 노량진을 건너 남태령 고개를 지나 수원을 통과한 뒤 ‘충청, 전라, 경상’의 삼남삼도(三南三道)로 향하던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 ‘소사’ 들판에는 특이하게도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왜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던 명나라 군에 원숭이가 포함되어있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택리지』에는 명나라 장수가 ‘농원(弄猿)’ 수백 마리를 이끌고 전투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조정남이 남긴 『난중잡록(亂中雜錄)』에서도 ‘초원(楚猿)’이라는 원숭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농원: 사람처럼 말 위에 올라타 활과 화살로 무장하여 공격하는 원숭이 모양의 짐승



최근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조선군 장수의 일기에서도 ‘초원(楚猿)’이라는 원숭이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당시 명나라 군이 실제로 원숭이를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초원’은 중국 남동부의 초(楚) 지방의 원숭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순우리말 '납'이 나타나는 지명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에는 '납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원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산의 모습이 마치 원숭이처럼 생겼다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외에도 과거 이곳에서 금속 납이 생산되는 곳이었다는 이야기나, 옛날 이곳에 낮에는 연기를 내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신호를 전달하는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다는 데서 '납산'이라는 이름이 전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순우리말 '납'이 들어가는 지명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납샘이' 마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 한가운데 샘이 있는데, 밤이면 납(원숭이)이 물을 마시러 마을로 내려오는 바람에 마을사람들이 샘을 메워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그 메워진 샘이 있던 마을을 '납샘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위를 나타내는 신(申)이 들어가는 지명

직접적으로 원숭이가 관련되어있지는 않지만, 십이지 중 원숭이를 의미하는 글자 '신(申)'이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름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 경계에 위치한 '곤신봉(坤申峰)'은, 땅을 의미하는 곤(坤)과 서남서(西南西) 방향을 의미하는 신(申)이 결합된 이름입니다. 오대산의 대찰인 월정사(月精寺)의 말사인 보현사(普賢寺)에서 보기에 이 산이 곤신 방위에 있기 때문에 곤신봉이라 한다고 전해집니다. 월정사의 말사(末寺)라고는 하지만, 이곳 보현사 역시 진덕여왕 때 창건되어 1,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 깊은 사찰입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신술산(申戌山)의 경우에도, 산이 바라보는 방향이 '신술' 방향이라는 데서 붙게 된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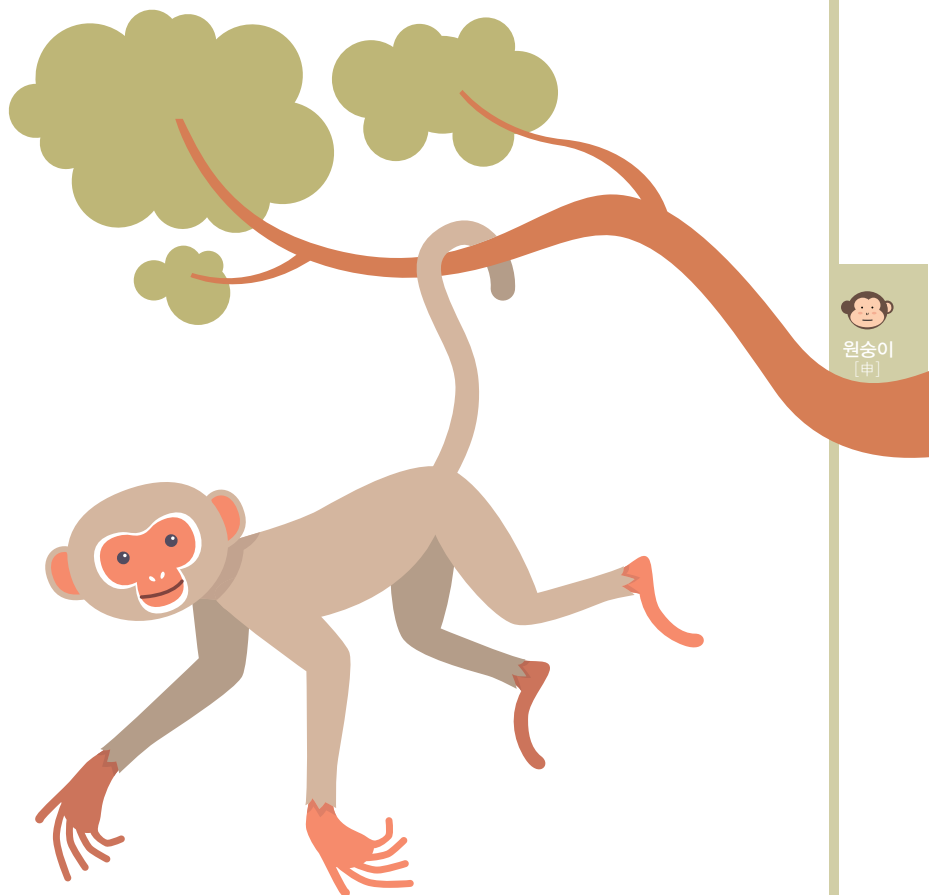
풍수지리와 선원포율(仙猿 抱栗)의 명당

전라남도 영광군 동남면에는 한때 ‘순원동’이라고 불리던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형상이 마치 원숭이가 밤을 품고 있는 선원포율(仙猿抱栗)의 명당이라고 하여 처음에는 ‘선원동’ 등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순원동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현재는 행정구역 통폐합의 결과 큰 샘물이 있는 ‘순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몇 가지 기록을 근거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원숭이가 자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삼국유사 권3 흥법(興法) 원종흥법 염축멸신(原宗興法 厭觸滅身)에는 “곧은 나무가 먼저 부러지고 원숭이들이 무리지어 소리내 울었다(直木先折, 猿獠群鳴)”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제주도에 원숭이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토의 지명들 중에는 원숭이와 관련된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일반적으로 한반도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납’이라는 순우리말이 있다는 사실과 원숭이 관련 지명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십이지 동물들과 함께 원숭이도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국토 깊은 산 어딘가에는 원숭이 무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풍각쟁이가 방안에 있을 때는 결코 원숭이와 논쟁을 벌이지 마라.”

-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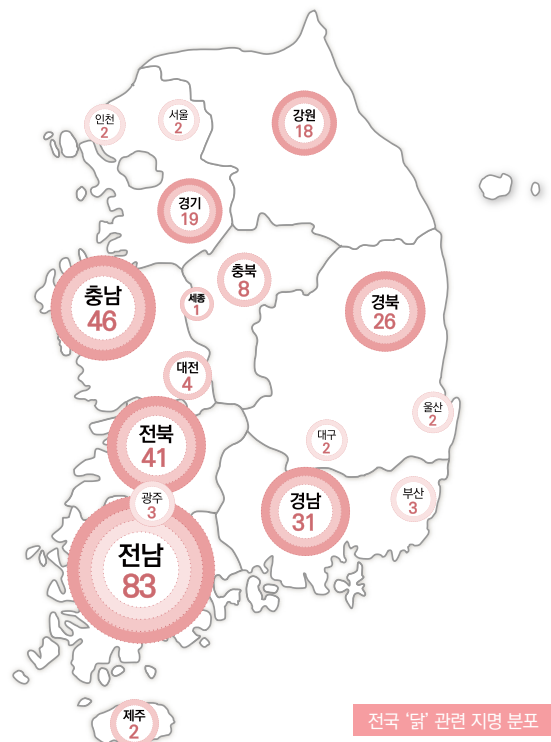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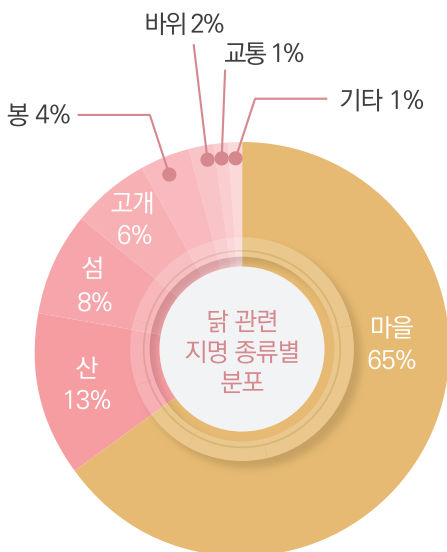
어둠을 헤치고 새벽을 여는 ‘닭’

닭은 십이지에서 열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이며, 십이지 글자들 중 ‘유(酉)’에 해당합니다. 시간으로 유시(酉時)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이고, 방향으로서는 정서(正西) 방향을 가리키며, 달로는 음력 8월입니다.

닭은 십이지 중 유일하게 날개를 가진 동물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부터 일찌감치 인간에게 길들여져 함께 살기 시작한 닭은 아침이 밝아오면 목 높여 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밤을 쫓아내고 아침을 여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앞두고 수행된 조사에 의하면 닭 관련 지명은 총 29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생활과 친숙한 동물인 만큼 많은 산과 마을, 섬 등에 닭과 관련된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닭 관련 지명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은 83개가 조사된 전라남도였으며, 그 뒤를 이어 충청남도 45개, 전라북도 41개, 경상남도 31개 등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둠을 쫓고 빛을 부르는 소리

닭 관련 지명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계명(鷄鳴)’이나 ‘명계(鳴鷄)’, ‘닭우리’, ‘닭울고개’ 등 닭이 내는 울음소리와 관련된 지명이 다수 나타났다. 이는 닭의 울음소리가 새로운 하루를 여는 소리이며,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불러오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는 ‘계명산(鷄鳴山)’과 ‘계명봉(鷄鳴峰)’이 있습니다. 신라 때 어느 날 하늘에서 이 산으로 천계(天鷄)가 내려와 울었다 하여 봉우리 이름을 계명봉이라 하였으며 산 이름을 계명산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계는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의 예불시간이 되면 닭의 울음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와 지어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명산의 기슭에는 ‘자웅석계(雌雄石鷄)’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바위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는 그 중 수탉에 해당하는 바위만이 남아 있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암탉 바위는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들이 깨트렸다는 이야기와 암자 확장공사 때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밖에도 계명봉은 바다 쪽에서 바라볼 때 장군의 투구 모양이기 때문에 왜구들이 계명산을 싫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계명봉에서 바라볼 때 대마도는 지네의 형국이라 계명산과 대마도가 닭이 지네에게 잡아먹히는 형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왜구들이 꺼려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정산의 원래 지명이 계명산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옛 지도에서는 계명산이 금정산보다 강조되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에는 ‘닭울고개(鷄鳴峴)’가 있습니다. 달우리고개, 달울고개, 달부리고개, 닭우리고개 등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오래 전부터 예천과 용문 사이를 왕래하게 만들어주는 고개였습니다.

이곳의 이름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개의 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지사(地師) 두사충(杜師聰)/두사충(寶士沖)이 이 고개를 지나다가 고개를 가리켜 금계(金鷄)라 칭하며 그 고개 때문에 이곳이 명나라 양양(襄陽)의 금곡(金谷)과도 같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이곳을 ‘닭울고개’, 한자로 계명현(鷄鳴峴)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래에 관한 다른 설로는, 인근에 있는 용문면 신리에 사는 서씨가 가난하여 짚신 장사를 해가며 아들을 가르쳤는데, 마침내 아들이 벼슬을 얻어 고을의 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려고 서씨가 하인에게 업혀서 백전리 신거리에 가서 아들을 만나 정신없이 즐기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는 데, 이 고개에 이르니 닭이 울었다는 이야기로부터 ‘닭울고개’라는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조선을 열고 도읍으로 삼을 곳을 찾아다닐 당시 지금의 용문면 소재지가 있는 ‘금당실’ 부근을 후보지 중 하나로 생각하고는 부하에게 닭 한 마리를 주면서, “이 닭이 금당실에 달을 때까지 울지 않으면 도읍으로 정하겠노라”고 했지만, 고개에서 그 닭이 울음소리를 내는 바람에 도읍이 되지 못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상경하던 도중 무슨 이유에선지 날이 밝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고개 위에서 닭이 울어서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전설이나, 가난한 선비가 빈궁함을 이기지 못한 아내와 헤어졌는데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 고개 위에서 만났지만 결국 헤어짐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섰다는 전설, 고개 인근에서 닭을 많이 키웠는데 그 닭들이 시끄럽게 울 때면 큰 난리가 생겨서 지금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전설 등, 이 고개에 얽힌 수많은 전설들이 구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명계(鳴鷄)’ 마을은 마을 뒷산이 닭이 우는 모양이라고 붙은 이름으로, 닭이 움직이는 모양 같다 하여 동계(動鷄)라고도 칭했는데 발음이 변해 ‘당기’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주시 외도일동 ‘계명’ 마을은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유난히 큰 곳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의 ‘계명산’도 오랜 옛날에 갑자기 큰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龍鷄)’ 마을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귀향길에 이 마을에서 잠을 청하던 중 아침이 아닌 초저녁에 갑자기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황산벌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전설에서 ‘용계’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투는 고려 말 한반도 남쪽에 진입한 수천 명의 왜구들의 침략을 물리친 1380년의 ‘황산대첩’으로 보인다는 설도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금계포란(金鷄 抱卵)의 명당

풍수지리에서는 닭의 모습을 닮거나 이름을 가진 산이 마을을 품고 있는 형세를 금계포란(金鷄抱卵)의 형태라고 이르며, 이 지세를 가진 장소는 풍요와 번창을 가져다 주는 명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닭실’마을과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닭실’마을은 모두 ‘황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들 중에는 ‘금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금계동(金溪洞)’이나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금계리(金鷄里)’,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의 ‘금계(金鷄)’ 마을,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금계동(金鷄洞)’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의 ‘금계산(錦鷄山)’도 이유는 같지만, 비단 금(錦)이라는 글자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닭실마을 전경



닭실마을 가로등

그밖에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의 ‘와계(臥鷄)’ 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닭마을(鷄村)’,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의 ‘닭뿔(鷄山)’, 충청남도 금산군의 ‘계원봉(鷄圓峯)’이나 금산군 금성면의 ‘알미’ 또는 ‘난산(卵山)’이라 불리는 산 등이 있고,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의 ‘쌍계(雙鷄)’ 마을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쇠증계’ 또는 ‘금계곡(金鷄谷)’,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의 ‘계봉(鷄峰)’ 마을이나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유동(酉洞)’ 등이 모두 이 금계포란형과 연관된 지명들입니다.

닭의 모양과 닭은 지명

닭의 뺨이나 머리 등 생김새가 닭은 지명도 있습니다. 독도의 동도(東島) 북서쪽에는, 서도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닭이 알을 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닭바위’라 부르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는 산등성이에 수탉의 벼슬을 닮아 ‘금계바위’라 불리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위치한 마을의 옛 이름도 함께 ‘금계동’이라 불렸으며 산의 이름도 ‘닭산’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금계바위에는 원래 가운데 부분에 많은 금이 묻혀 있었다고 하며, 닭의 눈에 해당하는 바위 부분에는 두 개의 빛나는 보석이 박혀 이 마을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동네의 수호신으로 믿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을 어떤 나그네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바위에 박힌 보석을 빼려고 하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고 캄캄해지더니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바위의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나그네는 바위에 깔려 죽고 보석도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금계바위

그밖에도 ‘닭의 발’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계족산(鷄足山)’, ‘닭의 벼슬 머리에 쓴 용의 모습’이라 하여 이름이 붙은 충청남도의 ‘계룡산(鷄龍山)’ 마을 산의 모습이 닭 머리 같다 하여 이름이 붙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의 ‘닭이머리마을’ 등 닭의 모습과 관련된 지명을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도에서 위치한 닭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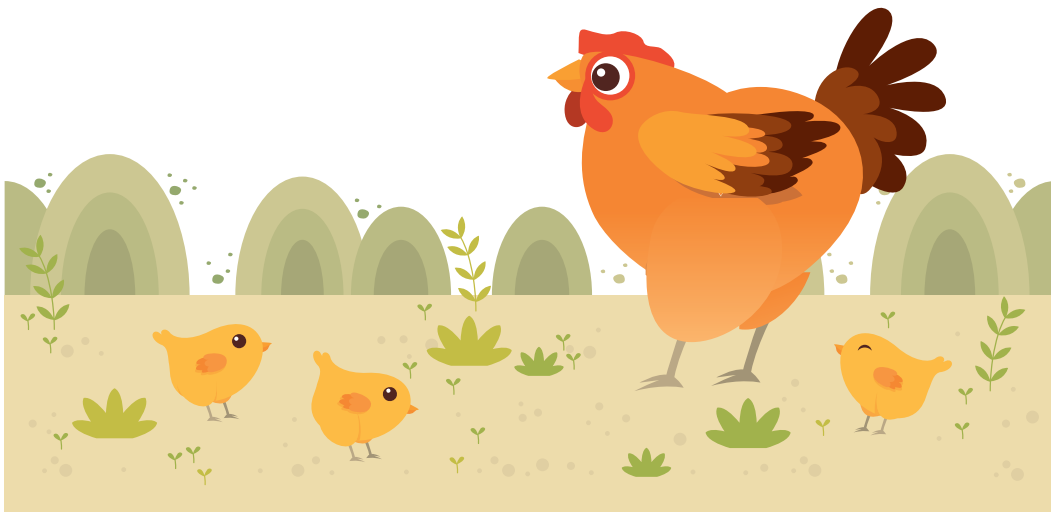


『여지도』(충청도)의 계룡산 일대

닭이 매일 아침 낳아주는 알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귀중한 식량이었으며, 우렁찬 울음소리는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활기를 일으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알’은 하얀색 외부와 노란색 내부라는 형태상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종종 태양과도 동일시되어왔습니다. 결국 닭은 빛나는 태양과 아침, 상서로움을 불러오는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 정유년에 그 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말은 바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릇된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는 뜻을 가진 불교 용어로, 어둠을 쫓고 밝음을 부르는 닭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수많은 닭과 관련된 지명들을 통해 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어둠을 쫓고 새로운 빛을 불러다 주고 있는 듯합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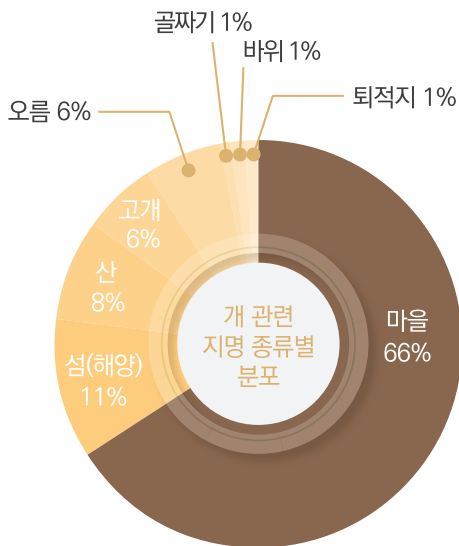
돼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개’

개는 십이지에서 열한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이며, 십이지 글자들 중 ‘술(戌)’에 해당합니다. 시간으로 술시(戌時)는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이고, 방향으로는 서북서(西北西) 방향을 가리키며, 달로는 음력 9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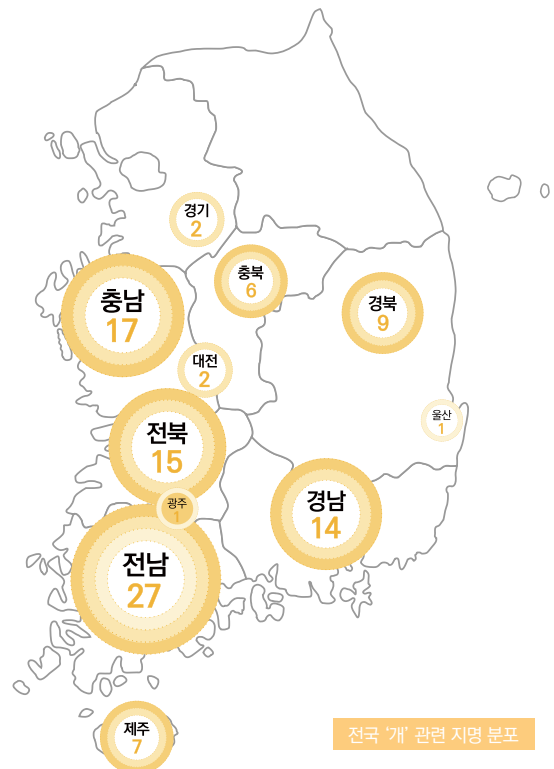
개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깊고 교감능력이 높은 동물이며,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수렵과 목축 활동에 있어 훌륭한 동료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예로부터 개의 짖는 소리는 악한 것을 물리치고 집과 가족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으로 서의 술시 또한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면서 개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 관련 지명에는 순우리말 ‘개’와 개를 뜻하는 한자 ‘구(狗)’와 ‘견(犬)’이 함께 나타났으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구와터’나 ‘구와골’ 등에서 보이는 ‘구와’라는 단어였습니다. ‘구와(狗臥)’는 글자 개가 누워있거나, 엎드린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시행된 전국의 개 관련 지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토에서 나타나는 개 관련 지명은 모두 101개로,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27개, 충남 18개, 전북 15개, 경남 14개, 경북 9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개를 닮아 나타나는 지명

먼저 개를 닮아 나타나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개의 형상이라 하여 이름이 붙게 된 ‘모구리오름’이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이 오름은 여러 가지 표기가 혼용되고 있는데, 그중 『정의읍지』의 「정의지도」와 『조선지형도』 등의 고지도에서 ‘모구악(母狗岳)’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구리오름 바로 남쪽에 조그만 알오름이 있는데, 이를 작은 새끼를 끼고 있는 어미개(母狗)의 형상이라 하여 ‘모구리오름’이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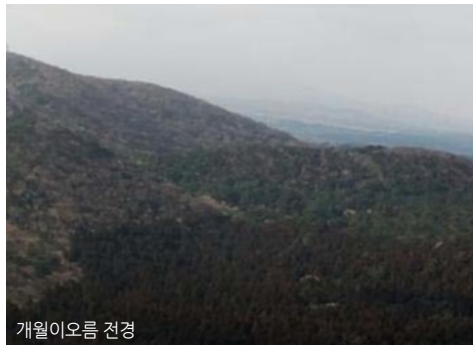


제주시 용담동의 ‘구아랑(狗兒郎)’ 마을은 모양이 개의 입(狗兒)이 벌어진 모양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며,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의 ‘윗개치’ 마을은 개 모양을 닮아 ‘개티’라고 부르는 바위의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게 된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연안에 있는 ‘구와도(狗臥島)’는 개가 엎드려 있는 형태의 섬이라는 데서 지명이 유래했으며, 지금도 주민들은 ‘개요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밖에도 충남 서천군의 ‘개목’은 뒷산 분묘의 모양이 개의 목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며,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구와타’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개경촌’이라는 이름 등은 마을 형태가 개가 누운 모습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 등, 전국에 걸쳐 개의 모습과 관련한 지명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개가 나타나는 지명



제주시 개동에는 ‘개월이오름’이 있습니다. 이곳은 『탐라지』나 『동국여지지』, 『대동여지도』 등에는 ‘표악(表岳)’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조선지형도』에서는 ‘견월악(犬月岳)’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오름의 형세가 개가 달을 보고 짚는 형국으로, 동쪽에서 보면 개가 머리를 쳐들고 짚는 모양과 유사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으며, ‘셋개월오름’이나 ‘셋개오리오름’ 등으로도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셋’은 사이(間)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구덕(九德)’ 마을의 명칭도 풍수지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조선 중엽 어느 지관(地官)이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구덕마을의 지형을 보고 개 아홉 마리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며, 아홉 마리 개가 큰 덕과 편안함을 품고 있으니 부자와 덕인이 배출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후 마을은 구덕(狗德)과도 소리가 같은 구덕(九德)을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액운을 쫓기 위한 기원이 담긴 지명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와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에 걸쳐 자리를 잡고 있는 ‘견두산(犬頭山)’의 원래 이름은 범의 머리를 닮은 ‘호두산(虎頭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원에서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일이 많이 발생했고, 남원읍내에 호석을 세우고 이 산의 이름을 견두산으로 개명한 후에야 비로소 호환이 없어졌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지도들에서는 ‘견두산’과 ‘견수산(犬首山)’이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한 개 이야기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동반자인 개와 관련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람을 지킨 이야기가 전해지는 지명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개목고개’는 병천면 병천리 서원말과 북면 매송리 사이에 위치한 은석산 북쪽의 고개입니다. 옛날 어느 촌부가 장을 보러 갈 때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촌부는 장터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다시 이 고개를 넘어오게 되었는데, 결국 고개 중간에서 술 취한 촌부가 깜박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보니 주위의 산 덩불이 모두 불타버렸는데 자기가 누워 있던 곳만 불타지 않고 남아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그 옆에 개가 절반이나 불에 그슬린 채 죽어있었습니다. 개가 개울로 가서 제 몸에 물을 적서 불끄기를 되풀이하다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개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는데, 이 소문이 관가에까지 알려져, 이곳에 ‘의구비(義狗碑)’를 세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 비석은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곳을 개목고개, 구항령 또는 방언으로 개미기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한집』에 수록된 오수설화

주인을 구한 개 이야기는 고려의 문신 최자(崔滋)가 지은 『보한집(補閑集)』에 수록된 오수설화를 통해,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오수’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오수역(槥樹驛)’이 설치되어 중요 관도로 사용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거령현(居寧縣)에 살던 김개인(金蓋仁)이라는 사람이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잘 때 들불이 번지자 개가 냇물에 몸을 적서 주위의 불을 끄고 힘이 다해 죽게 되었습니다. 김개인은 개의 무덤을 만들어 장사지낸 뒤에 지팡이를 꽂아두었는데, 나중에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고장의 이름을 ‘오수(槥樹)’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槥)는 개를 뜻하며, 수(樹)는 나무입니다.

2002년 김개인 생가가 복원되었고 2013년에는 ‘김개인과 의견(義犬) 동상’도 함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김개인과 의견(義犬) 동상

우리 국토에 나타나는 개와 관련된 지명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도 개는 매우 친숙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명에 얽혀있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주인을 지켜준 슬프고도 감동적인 옛날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헤어진 주인을 그리워하는 개나 인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개 등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단 견두산(犬頭山)뿐만 아니라, 어쩌면 개와 관련된 우리 국토의 수많은 지명들에는 다가오는 액운을 쫓고 평안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눈 위에서/ 개가/ 꽃을 그리며/ 뛰오.

- 윤동주, 〈개〉 中.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복(福)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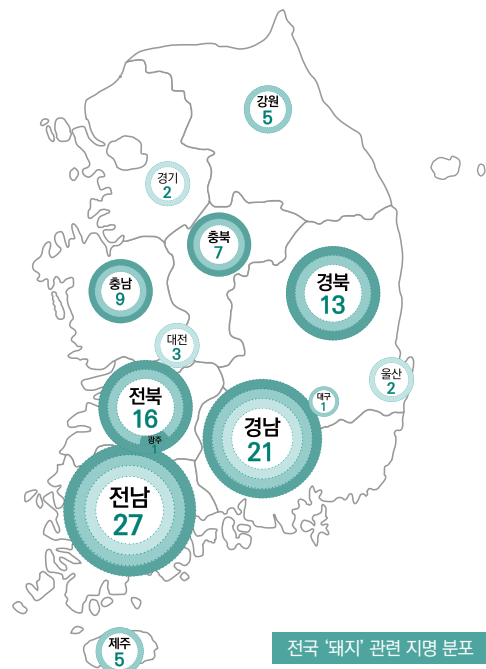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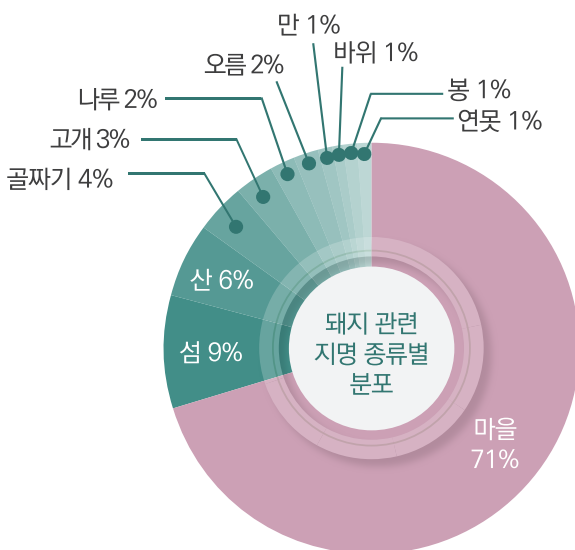
돼지는 십이지에서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열두 번째 동물로, 십이지 글자들 중 ‘해(亥)’에 해당합니다. 시간으로 해시(亥時)는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를 가리키며, 방향으로로는 북북서(北北西)를, 달로는 음력 10월로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커다란 덩치와 왕성한 식욕, 그리고 많은 새끼를 낳는 습성으로 인하여 다산과 풍년, 재복(財福)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돼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귀한 식재료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 돼지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때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는 등 기피하거나 적대해야 할 동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야생돼지를 의미하는 우리말 ‘멧돼지’는 산을 뜻하는 ‘뫼(메)’에 ‘돼지’가 결합된 말입니다.

우리 국토의 지명에 돼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명칭으로 ‘시(豕)’, ‘해(亥)’, ‘저(猪)’, ‘돈(豚)’ 등의 한자와 함께, 돼지를 뜻하는 순우리말 ‘도, 돛, 둔, 돌’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 등에 동물의 새끼를 뜻하는 접미사 ‘아지’가 결합된 ‘돌아지’ 같은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돼지’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시행된 조사에서 돼지와 관련되어 고시된 지명은 총 112개이며, 그 중 전남이 27개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남 21개, 전북 16개, 경북 13개 등 전반적으로 남쪽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 닮은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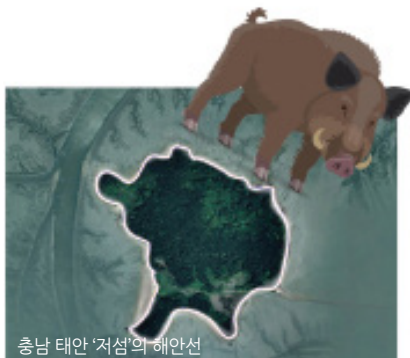
먼저 그 모습이 돼지의 형태 또는 그 일부를 닮았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산 ‘돈지봉(敦志峰)’은 원래 산의 모양이 돼지발톱과 흡사하다 하여 돈지봉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지만, 후일 뜻이 좋은 한자로 바꾸자는 의견에 따라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유래로는 산 아래에 돼지를 부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었다 해서 돈지봉이라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도투머리’와 충남 태안군 ‘둔두리’는 모두 마을 모습이 돼지머리처럼 보인다 하여 유래된 지명입니다. 도투머리는 ‘돌(돼지)+머리’의 합성어로 보이며, 둔두리는 ‘돈두리(豚頭理)’라는 원래 명칭이 시간이 흘러 변하게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제두’ 마을도 마을 형태가 돼지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게 된 이름이며, 여기서 ‘제두’는 ‘저두(猪頭)’의 소리가 변형된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악(猪岳)’이라고도 불렸다는 제주 구좌읍의 ‘돛오름’, 충남 태안 앞바다에 있는 ‘저섬(猪島)’, 전남 고흥군 과역면 연등리 앞바다에 있는 ‘저도’ 등은 모두 돼지와 그 모습이 유사한 데서 붙게 된 이름들입니다.



충남 태안 '저섬'의 해안선



전남 고흥 '저도'

돼지가 많이 출몰했던 지명

야생 돼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돼지는 모두 성격이 드세고 급한 편입니다.

산에서 출몰하는 야생 돼지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저돌적(猪突的)’이라는 표현은 성난 돼지가 달려드는 모습으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옛 속담 중에는 ‘성난 멧돼지는 호랑이도 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돛밭골 전경

강원도 정선에는 ‘웃제동’과 ‘아랫제동’이 모인 ‘제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도 멧돼지가 많이 출몰한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도 ‘저동(猪洞)’이 변형된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정선 제동과 아랫제동 항공사진

그밖에도 충남 서천골 ‘돼지골’ 역시 주변의 험한 산에 멧돼지가 많이 출몰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도동(道洞)’이라는 마을도 원래는 멧돼지가 많이 나온다 하여 ‘저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산에 있는 돼지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옛날부터 종종 있어온 일입니다. 그로 인한 민가의 피해에서 유래된 지명도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도작골’, 경북 문경시 ‘돌마래미’, 강원 삼척시 ‘돛밭골’ 등은 모두 멧돼지가 많이 나타나 농작물에 피해가 컸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돼지

고구려 때는 하늘에 제물로 바치는 돼지를 교시(郊豕)라고 하여 특별히 관리를 두어 길렀고 조선시대에도 멧돼지를 납향(臘享)의 제물로 썼습니다. 이처럼 돼지는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특별히 제물(祭物)로 사용되는 동물이었으며, 우리 국토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이배산’은 이무기의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게 된 이름입니다. 이곳은 기우제를 지내는 곳으로 유명한데, 제사에 사용된 돼지머리를 굴려서 산 아래 있는 용못에 떨어지게 하면 비가 내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사직(社稷)’ 마을은 조선 초기에 가뭄이 심할 때마다 돼지를 잡아 제사를 올리던 단이 있었던 마을이라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직(社稷)은 땅과 곡식의 신을 뜻하는 말로, 천자나 왕이 하늘과 신에게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제사를 지냈던 제단을 ‘사직단(社稷壇)’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사직’이라는 명칭은 아마도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을 사람들이 사직으로 지칭하면서 붙게 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경북 울진군의 ‘돛진’ 마을도 가뭄에 용제를 지내는 용바우가 이곳에 있고, 기제사에는 돼지 머리를 올렸으며, 돼지 머리를 자르는 돛쟁이가 살았다하여 돛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 속 돼지와 관련된 지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동쪽 바다에 위치한 ‘돛섬’은 섬의 형태가 누운 돼지를 닮았다 하여 붙게 된 이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락국왕의 총애를 받던 아름다운 후궁이 마산 앞바다 섬으로 들어가 궁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신하들이 환궁을 재촉하자 후궁은 별안간 황금돼지로 변해 무학산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 황금돼지가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왕이 병사들과 함께 황금돼지를 포위하자, 황금돼지는 별안간 한줄기 빛이 되어 바다로 날아가 섬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돛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그 섬에서는 밤마다 돼지 울음소리와 괴상한 빛이 계속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치원이 섬에 들어가 화살을 쏘 다음 그 화살이 꽂힌 자리에서 제사를 올리니 기이한 현상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곳에서 기우제나 용왕제 등을 올리면 영험하게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에는 ‘도드람산’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저명산(猪鳴山)’이라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모두 돼지의 울음소리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돌’과 ‘울음’이 합쳐진 ‘돌울음’이 변형되어 지금의 이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에도 돼지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가 이 산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 모친의 병환에 좋다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밭줄에 몸을 묶어 절벽에 매달려 약초를 뜯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려 절벽 위로 올라와보니 밭줄이 바위 모서리에 굽혀 끊어지기 직전이었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듣게 된 사람들은 하늘이 돼지 울음소리로 효자를 살려냈다고 하여 이 산을 저명산이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드람산에는 전설에서 유래한 ‘효자봉’이 있으며, ‘돼지굴’이라는 이름의 암벽도 있어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스럽게 통통한 돼지의 모습으로부터 행운과 풍요로움을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동전을 모으는 저금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다름 아닌 붉은색 ‘돼지 저금통’입니다. 이처럼 돼지는 우리 문화와 역사 안에서 행운과 번성을 의미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오랜 옛날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는 지능이 상당히 높은 동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나 사슴 등 천적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멧돼지 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국토에 나타나는 돼지 관련 지명들에 관한 조사에서도 돼지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재미있는 역사와 전설에 나타나는 측면 등의 다양한 면모들이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국토 곳곳에 담겨있는 십이지 동물 ‘띠지명’ 이야기

발 행 인	사공호상
발 행 일	2021년 04월
발 행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TEL. 031) 210-2700 FAX. 031) 210-2644
편집/인쇄	킨코스코리아
자 료 제 공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중앙박물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금원산 자연휴양림 남해군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주관광정보, www.jejutour.go.kr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태백시청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korean.visitkorea.or.kr 발간등록번호 = 11-1613436-000257-01
